발행인·이배용 | 편집인·김효근 | 제작·홍보과 | 발행·이화여자대학교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 전화·3277-2114, 3277-2047~9
팩스·364-8011 | www.ewha.ac.kr | 웹진 이화소식·news.ewha.ac.kr

이화소식

한국인을 보다 나은 한국인으로

우리는 단지 한국인이 보다 나은 한국인이 되는 것으로 만족한다
우리는 한국인이 한국적인 것에 대하여 긍지를 갖게 되기를 희망한다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와 그 교훈을 통하여 완전 무결한 한국인이 되기를 희망한다

메리 F. 스크랜튼 1832~1909



이화의 창립자 스크랜튼 선생 서거 100주기 4
케임브리지대 총장 명예 박사학위 수여 6
'Ewha in Germany' 거점 캠퍼스 강화 7
이화 글로벌 프로그램 8

제 87호 | 2009.11.20

표지 : 메리 스크랜튼 서거 100주년 특별전 포스터 이미지



담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슴에 세상을 품길…

오늘은 이화가 888명의 학사, 800명의 석사, 72명의 박사들에게 영광의 학위를 수여하는 뜻 깊은 날입니다. 무더위를 감내함으로써 아름다운 결실을 얻을 수 있듯이, 여러분은 이 시간을 위해 지난 수년간 학문 연마와 인격 도야에 최선의 열정과 노력을 쏟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대표해서, 여름의 풍요처럼 크고 보람된 이화 교육의 결실인 우리 젊은 지성들의 졸업과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랑과 관심으로 뒷바라지해 오신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학문적 성취와 인격적 성숙을 위해 헌신과 열정으로 지도해오신 교수님들께도 마음 깊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이화 안에서 새로운 세상에 도전할 준비를 갖추었고, 여러분의 꿈을 성취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 능력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제부터 무한한 가능성을 펼치며 보다 더 커다란 성취를 해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혹시 세상이 여러분에게 도전한다 해도, 여러분은 이화의 정신과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여러분의 가슴에 품을 수 있다는 담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화는 역사적인 선택을 통하여 발전해 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23년 전 스크랜튼 선생님은 하나님의 소명 안에서 낯선 조선 땅을 선택하였으며, 그곳에서 여성 교육을 위한 원대한 뜻을 품었습니다. 스크랜튼 선생님은 역경과 좌절을 경험하면서도 희망과 진보를 꿈꾸며 이화의 세기를 준비하였습니다. 그 뒤를 이은 수많은 이화의 선배들 역시 시대를 앞서 가며 사회 각 분야에서 최초의 여성이 되는 길을 닦아놓았습니다. 오늘날 이화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지속적으로 대한민국 발전의 거대한 원동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숭고한 선택과 결단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이화의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은 이화가 만들어낸 미래 사회의 리더입니다. 이화인들은 어느 시대, 어떤 사회에서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고 언

총장동정

2009 UKC, 기조연설 강연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도 롤리에서 개최된 한 · 미 학술대회(UKC)에 카이스트, 포항공대 등과 함께 참가했다. 이 총장은 기조강연에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여성 인력의 지원 및 활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 협정 체결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원장 김석준)과 8월 19일 학술·연구 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은 공동 연구 및 관련 지식·정보 교류, 교육·훈련 및 연구 협력을 위한 인력의 상호 교류 등의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별히 여성과학자 교육에 대한 논의가 함께 진행됐다.



YTN 초대석 인터뷰

9월 2일 YTN 초대석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배용 총장은 우리 역사속의 뛰어난 리더십을 바탕으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에 대해 선덕여왕과 세종대왕의 리더십을 예로 들며 이야기했다. 방송은 9월 18일 방영됐다.



제나 진취적이었으며 항상 용기 있고 주체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대학생들은 흔히 지금이 매우 심각한 경제 불황이며 취업이 어려운 시대라고 한탄합니다. 그러나 이화의 선배는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시대에도 강한 도전정신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추구하고 꿈을 좇아왔습니다.

세상에 고통이 없는 성장, 위기가 없는 성숙은 없습니다. 이화의 위대한 스승들과 선배들은 더 혹독한 일제식민지하 역사의 암흑기와 전쟁의 소용돌이, 절대적 빈곤의 암울한 터널을 지나면서도 단호히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고 시련을 성장으로 고양시켜 왔습니다. 이화의 역사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회는 꿈꾸는 자에게 반드시 주어진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이화의 졸업생 여러분,

4년 전 이화의 자랑스러운 선택이었던 여러분은 오늘날 이화의 자랑스러운 결실이 되어 사회에 나갑니다. 이화에서 배운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힘, 따뜻하고 진실한 여성의 리더십을 더 넓은 세상에서 발휘하여 인류 평화를 이루는데 앞장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섬김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겸손하고 성실한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은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혜택도 혼자 향유하는 데 그치지 말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이웃과 함께 나누고 사랑과 섬김으로써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이화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럼으로써 포용과 화합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널리 실천하기 바랍니다.

또한 어디에 있든지 길게 앞을 내다보는 예지력을 가지고, 미래를 개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변화하는 세계에 대한 분별력을 갖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높은 이상 속에서 진취적으로 개척해 나가 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발휘하는 여성의 리더십은 이화의 역사가 되고 세계 여성 지성 공동체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부디 이화인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잊지 않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이화 공동체는 3세기에 걸쳐 배움을 함께 나누고 서로가 서로의 발전을 도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이화의 정신을 공유하시고 비록 떨어져 살아도 마음은 같이 살아가는 한 가족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여러 갈래의 길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가는 길은 달라도 이화 가족이라는 한 마음으로 모교 이화가 함께 후원하고 동행하고 있다는 든든함을 잊지 말고, 선한 일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또 이루어진다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 길 위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이화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영원한 이화의 훈기로 당당히 세상에 나가 이화의 등불을 환하게 비추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졸업을 축하드리며, 여러분의 앞날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 8. 28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이 배 용

서울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참석

8월 2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서울장학재단이 주최한 '2009 하반기 서울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석했다. 서울장학생 선발지원 사업은 서울시가 기초과학 및 인문학 핵심인력 양성을 위해 서울시 소재 대학원 박사과정생을 육성하기 위한 장학사업의 하나이다.



경의선 개통식 참석

7월 1일 개통한 경의선 복선전철에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오전 5시50분 서울 서부역발 첫 열차에 탑승해 파주 캠퍼스 부지를 함께 돌아보는 자리를 가졌다. 이 총장은 "경의선 전철 개통이 한국 젊은이들이 세계속으로 꿈을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위촉

이배용 총장이 9월 8일 2년 임기의 헌법재판소 신임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2년 임기로 연임이 가능한 자문위원은 1년에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하게 된다. 8일 열린 위촉식과 첫 회의에서는 헌법재판제도의 운영상의 제도 개선 및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평화와 그린파트너십 국제 포럼 특강

9월 24일 경기도 문화의 전당에서 열린 '평화와 그린파트너십' 국제 포럼에 참석해 '역사에서 평화를 일구는 여성'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가졌다. 24일과 25일 양일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전신애 전 미국노동부차관보 등 세계적인 가족여성전문가들이 참가했다.



'더 나은 한국인'을 위한 삶, 스크랜튼家 조명

샐리 게일 등 스크랜튼 선생 후손 8명 이화 방문

이화 창립자인 스크랜튼 선생님의 뜻을 기리기 위해 10월 5일~9일 열린 '스크랜튼 서거 100주년 기념주간'에 스크랜튼 선생님 후손을 비롯, 교내외 인사들이 참석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기념주간에는 △10월 5일~9일 스크랜튼 기념채플 △10월 7일 추모예배 △10월 8일 양화진 묘역 참배 및 학술 심포지엄 등 행사가 개최됐다.

"한 사람의 꿈과 헌신이 이룬 열매에 감동"

특히 이번 행사에는 스크랜튼 선생님의 후손인 샐리 게일 부부, 토마스 데이비스 부부, 밴 패튼 부부(4대손)와 딸 줄리아 패튼, 폴 애딩턴 씨(5대손) 등 총 8명이 초청돼 이화와 특별한 만남을 가졌다. 이들은 선생님의 서거 이후 연락이 끊겼다가 본교가 스크랜튼 연구가인 엘렌 스완슨 씨의 연구를 지원해 후손을 찾게 되면서 처음 한국을 방문하게 됐다.

샐리 게일 씨는 기념 채플에 참석해 이화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스크랜튼 할머니께서 123년 전에 한국을 향한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일생을 바쳐 많은 열매를 거둔 것처럼 여러분도 꿈을 이루기 위해 도전하는 것이 그분의 바램일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윤후정 이화학당 이사장은 "사랑 헌신 희생 섬김 나눔의 교육정신을 통해 여성이 사회로 나가 소외계층을 향한 인류애적 봉사를 실천하길 염원하신 스크랜튼 선생님의 깊은 뜻이 현재에도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스크랜튼 선생님에 대한 경의를 표했다.

이배용 총장은 6일 스크랜튼 후손들의 기자간담회에서 "스크랜튼 선생님은 인류평화의 꿈을 품고 한국에 와서 여성의 인간화를 위해 헌신했으며, 인간에 대한 사랑을 품고 한국에 와 여성을 위한 사랑을 실천한 분"이라며 스크랜튼 서거 100주기를 기렸다.

"한국인을 보다 나은 한국인으로"

7일 대강당에서 열린 연합예배에는 본교와 이화여고, 동대문 · 상동 · 아현교회 등 123년 전 스크랜튼 선생님이 씨앗을 뿌린 학교와 교회 관계자 2000여 명이 참석해 스크랜튼 선생님을 추모했다.

스크랜튼 선생님 서거 기념당일인 8일 오전에는 윤후정 이사장과 이배용 총장을 비롯한 교내 인사들이 스크랜튼 후손들과 함께 양화진 외인묘지를 찾아 스크랜튼 선생님을 참배했다.

8일 오후 2시에 '메리 F. 스크랜튼 선생님의 여정과 여성교육정신'을 주제로 열린 학술 심포지엄에서는 스크랜튼 연구가 엘렌 스완슨 씨와 본교 이경숙 교수, 감리교신학대 이덕주 교수의 발표가 진행됐다.

이화여대 창립자인 스크랜튼 선생님은 최초의 한국 파견 여선교사로 미국 감리회 해외여선교회(W.F.M.S)의 파송을 받아 1885년 6월 53세의 나이로 의사인 아들 윌리엄 스크랜튼과 함께 한국 땅을 밟았다. 이 후 1909년 10월 8일 서울의 자택에서 별세하기까지 스크랜튼 일가는 한국 여성을 위한 교육사업과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위한 의료 활동 및 선교활동에 헌신했다.

스크랜튼 선생님은 △한국 최초의 여성 근대 교육기관인 이화학당 설립 △최초의 여성 병원인 보구여관 설립 주도 △매일학교 설립을 통한 여성 문맹 퇴치 활동 등 한국 근대 여성교육의 선구자로서 한국 여성의 교육과 의료 복지에 기여했다.


스크랜튼 선생 후손들

"이화의 소중한 정신을 계승키 위해 노력할 것"

스크랜튼 선생 서거 100주기 추모행사를 돌아보며, **윤후정** 이화학당 이사장



"스크랜튼 선생님의 후손들을 만난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10월 5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스크랜튼 서거 100주기 기념행사'를 시작하고 마무리한 윤후정 이화학당 이사장은 "낯선 조선 땅을 찾아 이화와 한국 사회에 빛과 희망의 씨를 뿌리신 스크랜튼 선생님에 대해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는 자리가 성공적으로 치뤄져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을 수 있었다"며 이번 추모행사에 대한 감회를 밝혔다.

"스크랜튼 선생님의 서거 100주기를 맞아 추모행사를 마련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3월 스크랜튼 선생님을 연구하고 있는 엘렌 스완슨 씨를 통해 후손들과 연락이 닿게 되어 이화에 초청할 수 있었다"고 초청 경위를 밝힌 윤 이사장은 추모행사 준비를 위해 4월 100주기 기념사업회를 구성했다.

스크랜튼 서거 100주기 추모행사는 선생이 씨를 뿌린 본교와 이화여고 동대문 · 상동 · 아현 교회와 함께 연합으로 진행하기로 했고,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행사 계획을 구체화시켜 나갔다.

"스크랜튼 선생님의 후손을 찾으려는 시도는 올해가 처음은 아니었다. 2005년에도 '이화학당 한옥교사 봉헌식'에 후손들을 초청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찾을 수가 없어 안타까웠는데, 스크랜튼 선생님 서거 100년 만에 후손들을 실제로 만날 수 있어 감격스러웠다. 후손들의 얼굴에서 선생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고, 스크랜튼 선생님의 기독교적 정신이 여전히 가족 안에서 계승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던 것도 뜻 깊었다"고 윤 이사장은 말했다.

"추모행사 기간 동안 기념채플을 운영했는데 대강당을 가득 메운 2천여 명의 학생들의 모습에서 스크랜튼 선생님을 추모하는 학생들의 마음이 느껴졌다. 10월 7일 저녁 이화여대와 이화여고, 동대문 · 상동 · 아현 교회가 함께한 연합예배에서는 스크랜튼 선생님께 헌정패를 바치며 감사의 마음을 작게나마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선생님 서거일인 10월 8일에는 스크랜튼 후손들과 함께 양화진 외인묘지에 묻힌 스크랜튼 선생님을 찾았다. 매년 창립기념일마다 참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번에 가족들과 함께한 참배는 그 어느 때보다 감격스러웠다"고 추모행사 중 인상 깊었던 순간들을 이야기했다.

스크랜튼 선생은 선교를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했지만 한국 여성들의 비참한 현실을 보고 '여성의 인간화'를 위한 여성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해 1886년 이화를 세웠다.

이화학당 최초의 건물은 양옥이 아닌 한옥교사로 지어졌다. 실용성을 중시한 양옥이 아닌 한옥으로 교사를 마련한 것은 "교육의 목표는 한국인을 보다 나은 한국인으로 만드는데 있다"는 스크랜튼 선생의 뜻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화의 이름을 정함에 있어서도 스크랜튼 선생은 자신을 앞세우지 않았다. 처음에 이화의 이름을 전신학교(Entire Trust School)로 짓고자 했으나 고종황제가 '이화'의 이름을 하사하자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윤 이사장은 "기독교 학교임에도 '이화'라는 이름을 스크랜튼 선생님이 교명으로 받아들이고 창립자의 이름을 고집하지 않음으로써, 이화의 활동 범위가 기독교 학교로서 제한되지 않고 학교의 운영 및 발전 방향에 있어 자주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었다. 당시 일반적으로 여성교육이 현모양처를 강조했던 것과 달리 스크랜튼 선생님은 여성들이 학교에서 배운 사랑, 나눔, 섬김 등의 이화 정신을 소외된 계층에 널리 펼칠 수 있도록 교육했다. 이런 스크랜튼 선생님의 진취적인 정신이 오늘날 이화에도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순교를 각오하고 한국에 오셨으나 스크랜튼 선생님의 가시는 길은 성대했다. 상동교회에서 양화진 묘역에 이르는 20리 길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선생의 마지막 길을 지켜봤다. 선생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봉사, 헌신을 통해 빛과 희망의 씨를 뿌렸을 뿐만 아니라 학교를 잘 가꾸는데 필요한 정신적 토대를 주셨다. 선생님께서는 씨앗 뿐 아니라 쟁기까지 유산으로 남기신 것이다"라면서 이화의 소중한 정신이 계속 계승되길 희망했다.

〈인터뷰: 함동주 이화역사관장〉



양화진 외인묘지 참배



추모예배



이화역사관 방문



1760명의 이화인, 더 넓은 세상을 향해 출발

이화, 미래사회 리더 배출

8월 28일 대강당에서 '2008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 열렸다. 총 1,760명(학사 888명, 석사 800명, 박사 72명)의 졸업생들은 졸업식을 마지막으로 이화를 떠나 더 넓은 세상으로 첫발을 내딛었다.

이배용 총장은 학위수여식사를 통해 졸업생들에게 "이화의 자랑스러운 선택이었던 여러분이 오늘 이화의 자랑스러운 결실이 되었다"고 격려했다. 또한 "기회는 꿈꾸는 자에게 반드시 주어진다"며 "이화에서 배운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힘, 따뜻하고 진실한 여성의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개발도상국 여성인재육성 프로젝트인 이화글로벌파트너십프로그램(Ewha Global Partnership Program, EGPP) 장학생 중 석·박사 과정 학생 2명도 함께 졸업했다. 학사와 석사 졸업생 외에 EGPP출신 박사가 탄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학 박사학위를 받는 와히다 슈미(31세, 방글라데시)씨는 졸업 후 고국으로 돌아가 방글라데시 명문대학인 치타공대학에서 환경미생물학을 강의할 예정이다. 언론홍보영상학 석사 학위를 딴 곡배(29세, 중국)씨는 한국에서 전공관련 분야로의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재학 중 인턴십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는 곡배 씨는 "세계 각국의 학생들과 함께한 공동 프로젝트 및 체험활동 등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며 "이화에서 배운 지식과 다양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진정한 글로벌여성리더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케임브리지대 최초의 여성 총장,

앨리슨 리처드 총장에 명예철학박사

이화역사관·창덕궁 방문해 한국의 역사 문화 체험

본교가 10월 22일 LG컨벤션홀에서 앨리슨 리처드(Alison Richard) 케임브리지대 총장에게 명예철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이배용 총장은 "앨리슨 리처드 총장은 케임브리지대 800년 역사상 최초의 여성 총장으로 대학 혁신 분야에서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하고, 국제교류 확대 및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등을 통해 평등한 인류 사회 건설에 이바지 한 공로를 인정해 명예 철학박사학위를 수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앨리슨 리처드 총장은 2003년 총장으로 취임한 이래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학의 재정적, 학문적 입지를 강화하는데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리처드 총장은 "대학이 명예박사를 수여하는 것은 한 개인이 이룬 사회적 공헌에 대한 가장 가치 있는 인정임과 동시에 대학의 사회적 역할과 위상을 입증하는 일"이라며, "전통적인 역사의 바탕 위에 학문적, 사회적 성취를 이룬 대학에서 수여하는 명예박사학위를 받게 되어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본교와 케임브리지대는 이번 명예박사수여식을 계기로 향후 한국학과 자연과학 분야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교환학생, 써머스쿨 등의 학생교류 프로그램 추진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 날 명예박사수여식 후에는 이배용 총장과 앨리슨 리처드 총장이 함께 이화역사관과 창덕궁을 방문했다. 이배용 총장은 "이화역사관은 한국 여성 교육의 역사와 미래를, 창덕궁은 사람과 자연의 조화, 백성을 생각하는 정치 등 우리 조상의 정신과 문화를 담고 있는 곳"이라며, "이화와 케임브리지 모두 우수한 전통과 발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대학으로서 오늘 방문을 통해 서로의 문화와 정신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교류 협력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앨리슨 리처드 총장은 "케임브리지대학의 역사는 800년이지만, 여성 교육을 시작한 시기는 19세기 말인데 같은 시기에 한국에서도 이화여대가 여성을 위한 교육의 문을 열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라며, "이화의 한국 여성 교육 역사와 한국 문화유산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배운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배용 총장, 독일 괴팅겐 · 베를린 · 프랑크푸르트 · 튀빙엔 대학 방문

'Ewha in Germany' 거점 캠퍼스 강화






1. 이배용 총장과 괴팅겐대학 쿠르트 본 피구라 총장
2. 베를린자유대학 우르술라 렘쿨 부총장과 이배용 총장
3. 강지현 국제교류부처장, 김성국 교수, 지홍민 국제교류처장, 이배용 총장, 베를린자유대학 크리스틴 카이클-크라이트 부총장, 코프리 귀골트 국제교류처 실장, 이은정 한국학과 교수
4. 이배용 총장과 튀빙엔대학 베른하드 잉글러 총장

이배용 총장은 7월 6일~11일, 베를린 · 프랑크푸르트 등 독일 지역 명문대학을 방문, 이들 대학과 교류협정을 확대하고 교류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는 등 'Ewha in Germany' 거점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내실다지기에 나섰다.

이 총장은 기존에 교류 협력을 맺었던 괴팅겐대학, 베를린자유대학, 훔볼트대학, 프랑크푸르트대학, 쾰른대학 외에 튀빙엔대학과 새롭게 협정을 체결해, 독일을 거점으로 유럽 전역에서 이화의 재학생과 교수들이 자유롭게 학습하고 연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본교는 △괴팅겐대학과 교환학생 매년 10명으로 확대 및 한국학과 설립 추진 합의 △베를린자유대학과 교환학생 교류 확대 합의 △훔볼트대학과 여성학 분야 공동연구 협의 △프랑크푸르트대학교 여성학 연구소와 공동 연구 추진 합의를 이뤄냈다. 특히 튀빙엔대학과는 교환협정 조인식을 통해 새로이 교환협정을 체결하고 매해 2명씩 교환학생을 교류하기로 했다.

한편, 이배용 총장은 7월 8일 베를린자유대학에서 '한국 여성의 어제와 오늘, 미래'라는 특별강연을 통해 한국 여성사를 소개했다. 이날 특강에는 베를린자유대학의 한국학과 학생 및 교수가 참여해 한국의 역사와 여성사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또한 9월 8일에는 베를린자유대학 우르술라 렘쿨(Ursula Lehmkuhl) 제1부총장이 이화를 방문해 교류 확대에 대한 추가 협정을 체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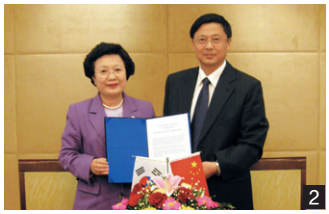
베를린자유대는 독일 내에서 랭킹 4위의 명문대학으로 한국학과를 개설하고 한국학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 향후 본교의 주요 거점 대학으로서 활발한 교류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화해외거점캠퍼스는 본교가 추진하는 '글로벌 이화 2010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전세계 핵심지역 18개 도시의 대학과 협력을 맺고 있는 이화만의 독자적인 글로벌 지식 네트워크이다.

'Ewha in Beijing' 확대, 중국 속 이화 위상 높아져

중국 북경대학 · 남경대학 · 양주대학과 교류 강화








1. 북경대 한국학과 교수 및 재학생들과 함께
2. 이배용 총장과 양주대학 곽송 총장
3. 양주대학 한국학과 교수 및 학생 대상 특강
4. 중화여자대학 '국제 여자대학 심포지엄' 기조강연

이배용 총장은 '이화해외거점캠퍼스-Ewha in Beijing' 강화를 위해 10월 17일~18일 북경대, 중화여자대학 등 중국 북경지역 주요대학을 방문했다. 또한 26일~28일에는 중국 강소성에 소재한 남경대학 · 양주대학을 방문, 국제교류협정을 체결하는 등 거점대학 확대의 발판을 구축했다.

17일에는 'Ewha in Beijing'의 핵심대학인 북경대학을 방문, 교환학생 인원수를 확대하고 2010년부터 본교 국제하계대학으로 10명 이상의 북경대생을 파견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북경대학 한국학과 교수 및 학생을 대상으로 '평화를 일구는 여성들'이란 주제로 스크랜튼 선생님을 비롯한 역사 속 여성의 역할에 대한 특강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 총장은 18일 중화여자대학교가 개교 60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국제여자대학 총장 심포지엄'에서 세계 여자대학을 대표해 기조강연을 맡았다. 이 자리에서 이 총장은 21세기 여자대학의 역할 정립과 세계 여자대학과의 네트워크 구축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그 외에도 북경동창회, 중국여성기업인협회 및 ORG기업을 방문하는 등 'Ewha in Beijing'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10월 26일~28일에는 중국 최대 부성인 강소성 정부의 초청으로 남경대학과 양주대학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서 이배용 총장은 2007년 중국 내 종합대학평가 5위를 차지한 남경대학과 국제교류협정 체결을 합의하고, 교환학생 프로그램과 국제하계대학 등 활발한 교류를 논의했다.

다음날인 27일에는 양주대학 곽송 총장과 만나 교환학생 인원수를 5명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국제하계대학 · 복수학위 등을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양주대학 한국학과 교수 및 학생 130여 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본교는 전세계 핵심지역 20개 도시에 이화해외거점캠퍼스 구축을 목표로 '글로벌 이화 2010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중국에서는 북경대학 · 칭화대학 · 인민대학 · 북경사범대학 · 중앙여자학원 등 중국 최고 명문대학에 'Ewha in Beijing'을 성공적으로 구축했다.

Ewha Global Program

여름방학을 맞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화의 여름방학 프로그램들은 재학생들이 해외로 나가 심화학습을 진행하는 '아웃바운드 프로그램'과 외국 유수 대학의 인재들이 이화에 와서 이화인들과 함께 수업을 듣는 '인바운드 프로그램'으로 각각 전문화되어 있다.

이화 글로벌 프로그램 ❶
한국이 좁다, 가자! '아웃바운드'



EGI

[EGI(Ewha Global Initiative) 유럽탐사]
13박14일 이대생이 유럽을 흔들다

'이화 글로벌 이니셔티브' 장학프로그램이 올 여름방학 세 번째 탐사를 진행했다. EGI는 본교가 재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장학프로그램으로 지난 6월 23일 발대식을 가진 36명의 제3기 EGI 장학생들이 6월 28일, 13박14일의 일정으로 유럽을 탐방했다.

'EGI 유럽탐사단'은 6월 28일부터 6개국(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 8개 도시(암스테르담, 헤이그, 브뤼셀, 베를린, 하이델베르크, 제네바, 파리, 로마)의 대학 및 글로벌 기업, 국제기구 등을 탐방 후, 유럽의 정치 · 문화 · 사회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었다.


EGI


EGI

[이화봉사단]
해외에서 펼치는 이화인의 사랑

150여 명으로 구성된 이화봉사단은 여름방학을 맞아 국내는 물론 해외 각지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6월 29일~7월 12일까지는 중국 훈춘에서 20여 명의 학생들이 교육 봉사를 △7월10일~18일까지 우즈베키스탄의 우르겐치, 부하라 지역에서는 5명의 재학생들이 진료, 지역사회 보건사업을 통한 의료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교수인솔해외학습 프로그램]
학점 이수는 '필수' 폭넓은 견문은 '덤'

교수인솔해외학습 프로그램은 전공 교수 1명이 방학기간 동안 재학생 6~10명을 인솔해 각국 대학 및 기관의 해외 석학들과 공동수업 및 세미나를 진행하는 심화학습 프로그램이다. 이번 여름에는 총 13명의 교수와 170여 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참여학생들은 '스웨덴의 사회복지정책', '아트 인 뉴욕', '영국 현대 도예', '일본 홋카이도의 생태환경과 문화' 등 각 전공별로 다양한 주제를 정해 7일~10일 동안 전공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경험한 후 학점을 이수했다.


해외의료봉사


해외교육봉사



해외의료봉사

이화 글로벌 프로그램 ❷

이화가 좋다, 오라! '인바운드'

이화 안에서도 작은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 인바운드 계절학기 프로그램인 '이화국제하계대학', '이화-하버드 썸머 스쿨'이 열리기 때문. 한국 문화와 사회를 배우고자 이화를 찾은 해외 대학생들과 같이 공부하기에 해외로 나가지 않고서도 이화 안에서 세계와 교류할 수 있다.

[이화국제하계대학]
이화 안의 작은 세계

'이화국제하계대학'은 본교가 국내 최초로 시작한 38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썸머 스쿨 프로그램이다. 방학 동안 저렴한 학비로 국내외 유명 교수의 영어 강의를 해외 대학 학생들과 같이 수강함으로써,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본교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기를 수 있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이다.

'2009 이화국제하계대학'은 4주 일정의 세션 Ⅱ(6월22일~7월17일)과 2주 일정의 세션 Ⅲ(8월3일~8월14일)로 나누어 예술 · 경제 · 미디어 · 역사 · 법학 등의 학문 영역 전반에 걸친 200여 개 다양한 강의가 진행됐다. 정규수업 외에도 매주 주말 템플스테이, B-boy공연과 사물놀이 관람, 한식요리, 태권도 등을 경험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화국제하계대학

올해는 미국, 중국, 영국, 캐나다, 독일,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폴, 대만, 한국 등 총 12개 국가 230명(외국 학생 163명, 본교 재학생 67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이화-하버드 썸머 스쿨]
국내 유일 하버드대 교류 프로그램



이화-하버드 썸머 스쿨

2006년 처음 개설된 '이화-하버드 썸머 스쿨'은 하버드와 본교 재학생들이 함께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해 배우고 학점도 이수하는 프로그램이다. 하버드대와 공동 계절학기를 개설한 곳은 국내에서 본교가 유일하다.

6월 29일~7월 31일까지 4주간 운영된 올해 썸머 스쿨에는 하버드생 14명, 본교생 11명 그리고 본교와 학점교류 중인 대학 재학생 5명 등 총 30명이 참가했다. 이들 학생들을 위해 맞춤 기획된 한국학 교과목은 '한국 고대사와 고고학 탐험(Adventures in Early Korean History and Archaeology)'으로 하버드대 한국학연구소 마크 바잉턴 교수가 강의를 맡았다.

이화국제하계대학





'Ewha Campus, Ewha Life' 사진전

우리가 기억하는 2009 이화의 모습들

2009년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화를 기억할까?

싱그러운 웃음소리, 숲속에서의 정담, 아름드리 나무들과 육중한 석조건물들, 긴장감 넘치는 강의실, 학생들의 열정적인 공연 모습, 아름다운 캠퍼스의 사계 등 저마다 다른 이화의 풍경들이 추억이란 이름으로 남는다.

다양한 이화의 풍경들을 담은 사진전 'Ewha Campus, Ewha Life'가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ECC 기도실 갤러리에서 열렸다. 본교 교직원과 학생, 홍보과 사진PD가 직접 찍은 사진 총 136점을 전시해 이화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 사진 곳곳에 숨은 친구들의 모습을 찾아보는 재미도 덤으로 즐길 수 있었다.

전시회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갤러리 중앙에 마련된 '이화 역사의 호수'. 촛불이 떠다니는 작은 연못에 123년간의 이화 변천사가 시대 순으로 전시되어 엄숙하면서도 신비로운 느낌을 자아낸다. 전시장 한 켠에는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된 이화사진집 'This Ewha'도 상영됐다. 추억의 앨범을 돌아보듯 음악과 함께 동영상을 감상할 수 있었다.

이배용 총장은 "123년간의 이화 역사와 더불어 다채로운 이화인들의 모습을 한 데 모아 생생한 오늘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은 전시"라고 말했다.

전시회 방문객을 위한 이벤트도 풍성했다. 이화의 캠퍼스를 배경으로 한 포토월 앞에서 기념 촬영과 즉석 인화가 가능하고, 매주 추첨을 통해 방문카드 작성자 중 5명에게 USB 메모리도 증정해 재학생은 물론 교직원의 많은 참여가 있었다.

2달간 진행된 전시기간 동안 2,600여 명의 관람객이 관람하는 등 사진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 기존에 10월 31일까지 예정된 전시기간을 연장 운영했다.

이화 브랜드 파워 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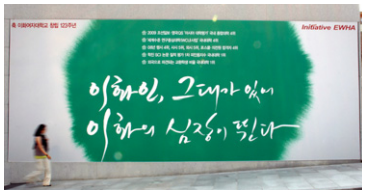
'졸업생 · 신입생'편 진행



본교는 '이화 브랜드 파워 캠페인' 이미지 광고로 선후배 대화' 편, '연구 vs 경력' 편에 이어 '졸업생 · 신입생' 편을 제작했다. 2009년 행정고시 4위, 사법 · 외무고시 5위, 변리사시험 5위, 로스쿨 · 의전원 전국 합격자 4위 등 전문직 여풍(女風) 주도, 사회 각 계의 엘리트로 활약하고 있는 이화인들. '제43회 외무고등고시' 합격자 김아영(정외 · 01)동문은 이화의 다각적 지원과 이화가 심어준 열정과 자부심으로 이러한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며, 이화가 가장 든든한 후원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신입생을 대표한 오정현(사회과학부 · 09)씨는 '외국 교환학생 비율' 국내대학 1위, '2009 아시아 대학평가' 국내종합대학 4위, 20개 해외거점캠퍼스로 2010년까지 재학생 60% 해외파견, 'SCI급 논문질적평가' 국내대학 2위 등 우수한 인재들이 이화를 선택하는 이유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며, 새롭게 입학한 후배 이화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자랑한다.

지난 5월부터는 정문에 아트월 '이화의 심장이 뛴다', '이화의 전성기' 편을 게시해 이화인 뿐 아니라 이화를 찾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호응을 받았다.





이화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Ewha With You 캠페인

2009학년도 2학기부터 'Ewha With You' 캠페인이 진행됐다. 'Ewha With You'는 이화인의 학교생활과 커리어 개발을 돕기 위해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과 프로그램을 알리고, 대학생활의 즐거움을 나누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홍보 캠페인이다.

◆ **이화를 알리다**

'Ewha With You'에서 제일 먼저 시행되는 것은 학교의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장학금, 무료교육, 글로벌 프로그램 등 학생 서비스들을 시기별 · 주제별로 일목요연하게 묶어 소개해주는 정보지식 제공 서비스다. 시기별로 꼭 필요한 정보만을 모아서 소개하는 'Ewha With You'의 기획기사를 이화 홈페이지에 연재하고 있다.

◆ **이화를 즐기다**

'Ewha With You'는 다양한 활동과 이벤트를 통해 이화인에게 다가간다. 이화인들의 대학생활에 활기를 불어넣을 이벤트와 이화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또한 언제나 이화인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Ewha With You'의 캠페인 정신을 담은 기념품을 11월 9일부터 한 주간 재학생들에 배포했다.

◆ **이화를 이해하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사랑하게 된다. 'Ewha With You' 캠페인은 학교 수업만으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이화'를 각종 미디어를 통해 알리고, 모든 이화인들이 진정한 '이화의 전성기'를 누리며 자부심을 공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계획이다.

'Ewha With You' 캠페인을 통해 이화인들이 학교에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즐거운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화 르네상스 프로젝트 꽃피다

인성교육 강화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2009년 하반기에는 본교가 문화적 소양과 인문학적 정신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자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해 온 '이화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프로그램들이 활발하게 펼쳐졌다. 사회 각계 분야의 리더들이 릴레이 강연을 진행하는 정규 강의가 신설된 것을 비롯해 재학생들이 문화예술기획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경험할 수 있는 '이화 문화예술기획 아카데미'가 진행된 것. 또한 2008년 가을, 처음 시작한 '총장님과 함께하는 역사문화 체험'은 올 가을 세 번째를 맞았다.

2008년부터 세 번째 탐방 진행

총장님과 떠나는 조선왕조 500년 역사문화 체험

이배용 총장은 10월 9일 경기도 고양시 서오릉에서 외국인 학생 30여 명을 비롯해 총 70여 명의 재학생들과 함께 '총장님과 함께하는 역사문화 체험'을 진행했다.

이 총장은 명릉과 익릉, 경릉을 지나 솔숲 우거진 대빈묘와 홍릉을 따라 걸으며 "무한경쟁의 세계시장 속에서 탄탄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것에 대한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서오릉 왕릉들을 둘러보며 그 속에 담긴 역사적 교훈과 선현들의 지혜를 배우고 우리 역사에 대한 올바른 통찰력과 자긍심을 갖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가한 서미경(통계 · 05)씨는 "그동안 유럽 등 서양의 역사는 잘 알고 있으면서 정작 한국의 역사는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 이번 역사문화체험을 신청했다"며 "역사를 통해 우리의 삶을 어떤 자세로 살아야할지 현재를 돌아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총장님과 함께하는 역사문화 체험' 행사는 지난해 10월 '종묘 역사문화 체험', 올 4월 '경복궁 역사문화 체험'에 이어 세 번째다.

'이 시대 리더와의 만남', '문화예술특강'

이화가 제공하는 특별한 강의 시리즈



'이화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09년 하반기 사회 각계 분야 리더들이 직접 강연을 진행하는 '이 시대 리더와의 만남'과 '문화예술특강' 두 과목이 신설됐다. 이번 강좌를 통해 학술 · 정치 · 경영 · 문화 ·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리더들이 릴레이식으로 본인들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이화인들에게 강의한다. 1학점 정규강의로 수업 당 200명의 학생들이 수강한다.

'이 시대 리더와의 만남' 수업은 본교와 대학교육협의회를 이끌고 있는 이배용 총장이 한국역사 속의 창조적 리더십을 주제로 첫 테이프를 끊었다. '이 시대 리더와의 만남' 수업에는 이 총장을 비롯 영화감독 이광모, 김문수 경기도지사, 산악인 오은선 씨 등 여러 사회적 리더들이 연달아 강단에 선다.

'문화예술특강'은 김보희 이화여대 박물관장, 배순훈 국립현대미술관장, 사진작가 김중만, 소설가 김주영, 영화배우 안성기 등 국내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우리 문화예술을 폭넓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수업을 듣는 김광미(법학 · 04)씨는 "성공한 리더들을 통해 리더들의 남다른 점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다"고 강의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국내 대학 최초로 문화예술기획 아카데미 신설

이론 · 실기 접목한 커리큘럼으로 인기



다문화적 창의성과 감수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제1기 이화 문화예술기획 아카데미'가 진행됐다. 이는 '이화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신설된 '공연문화연구센터'의 첫 번째 프로그램이다.

'이화 문화예술기획 아카데미'는 8월 3일부터 3주간 본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공연예술기획 △미술기획 △공공기획 등 세 분야로 나눠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아카데미는 '인천 세계도시 축전', '예술의전당 국립발레단', '덕수궁미술관' 등을 방문하는 현장학습과 각 분야별 이론 수업으로 구성돼 이론과 실습이 접목된 탄탄한 커리큘럼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본교 교수진 외에 최태지 국립발레단장, 조은정 미술평론가, 인재진 지역축제 감독 등 문화예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했다. 아카데미를 수강한 임채연(영어교육 · 08)씨는 "문화예술기획 쪽으로 진로를 탐색하면서 마땅한 교육과정을 찾지 못해 고민했는데, 학교에서 이런 양질의 문화콘텐츠 교육을 무료로 수강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3주간의 교육이 끝난 8월 21일 수료식에서는 아카데미를 수강한 수강생들이 직접 기획한 공연인 '문화를 꽃 피워라, 이화'를 선보이는 자리가 마련되기도 했다.

이화의 연구논문 질적 수준에서 높은 평가

대학별 SCI급 논문 질적평가에서 본교 2위

한국학술진흥재단(이하 학진)이 발표한 대학별 SCI급 논문 인용지수(Impact Factor)에서 본교(2.86)가 2위를 차지했다. 1위는 울산대(2.95), 3위는 포스텍(2.77), 광주과학기술원(2.76)과 서울대(2.74)가 그 뒤를 이었다.

이는 학진이 발표한 '2009년 성과분석 이슈리포트-2007년도 대학연구활동 실태조사 심층분석 보고서'에서 과학기술논문색인(SCI)의 인용지수를 분석한 결과이다.

인용지수(Impact Factor)란 어떤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특정 년도나 기간 동안 인용된 빈도수로 그 논문이 실린 잡지의 수준을 평가하는 척도이다. 즉, 게재된 논문들이 많이 인용될수록 그 학술지의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이렇게 인용지수가 높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질적 수준 역시 높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순위	대학	지수
1	울산대	2.95
2	**이화여대**	**2.86**
3	포항공대	2.77
4	광주과기원	2.76
5	서울대	2.74
6	순천향대	2.58
7	연세대	2.57
8	성균관대	2.55
9	KAIST	2.53
10	고려대	2.52

〈대학별 순위〉

본교는 2008년에 발표된 학진의 '2003년~2007년 학술연구조성사업' 결과에 따른 SCI급 논문의 질적평가와 1차 피인용 지수에서 각각 3위와 1위를 차지한데 이어, 이번 대학별 SCI급 논문 인용지수에서 2위를 차지함으로써 질적 평가 부분에서 우수한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조지형 연구처장은 "2008년도에 발표된 평가가 일부 특정사업 결과에 대한 발표였다면, 이번 평가는 2007년도에 각 대학이 발표한 모든 SCI급 논문에 대한 평가이니만큼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본교의 논문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저널에 많이 게재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논문의 질적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수리과학연구소

2009 이공계 대학중점연구소 선정

수리과학연구소(소장 이준엽 교수)가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8월 28일 발표한 '2009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에서 이공계 대학중점연구소로 선정됐다. 수리과학연구소는 향후 9년간 지식기반 정보화 사회를 이끌어 나갈 계산수학 분야 연구를 수행하며, 매년 5억원(총45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된다.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은 대학 연구거점 구축, 연구소 중심의 젊은 신진 연구인력 양성 지원, 특성화 · 전문화를 통한 대학연구소 연구역량 강화, 연구 성과를 활용한 대학의 교육기능 보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지원사업으로, 올해 이공계 분야에서는 총 87개 신청과제 중 본교 수리과학연구소를 포함 18개의 신청과제가 선정됐다.

수리과학연구소는 1단계 과제로 '영상 · 암호 · 생명 기반기술을 위한 계산수학'을 연구한다. 계산수학이란 새로운 수리적 모델링 기법과 고성능 계산기법을 통해 복잡한 자연현상과 공학 문제를 해결하려는 분야로, 수리과학연구소는 이를 미래 융합기술과 접목하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본 사업은 대학별로 이공계분야의 1개 연구소만을 추천해 전국적 경쟁을 거쳐 선발하는 사업으로, 대학의 육성 의지와 대외 경쟁력을 모두 갖춘 연구소만이 선정되어 왔다. 본교는 나노바이오기술연구소, 한국여성연구원, 약학연구소, 교육과학연구소가 대학중점연구소로 선정된 바 있다.

기후 · 환경변화예측연구센터

선도연구센터육성사업 선정

환경공학과 박선기 교수가 연구책임자로서 센터사업을 총괄하는 기후 · 환경변화예측연구센터가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선정하는 '2009 선도연구센터육성사업' 이공학분야 공학연구센터(ERC : Engineering Research Center) 사업에 선정됐다.

본교 공과대학 교수 6명과 사범대학 교수 2명을 포함, 12명의 연구진으로 구성된 기후 · 환경변화예측연구센터는 기후와 환경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기후 · 생태 · 환경 변화를 통합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및 적용을 목표로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며, 미항공우주국 고다드우주비행센터, 일본 동경대학 등 국제적 연구기관 및 한라산업개발 등 기업들과도 협력을 맺어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치게 된다.

한국연구재단의 '선도연구센터육성사업'은 국내 대학에 산재되어 있는 우수한 연구인력을 분야별로 조직 · 체계화해 집중 지원하고 세계적 수준의 선도 과학자군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공학분야(SRC/ERC), 기초의약학분야(MRC), 학제간융합분야(NCRC) 등 3개 분야를 지원한다.

2009년도 이공학분야(SRC/ERC) 사업에는 총 91개 팀이 지원 신청하여 9개 팀이 최종 선정됐다. 기후 · 환경변화예측연구센터는 본교 최초의 공학연구센터(ERC)로서 향후 최소 7년간 매년 12억원 수준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된다.





2005 노벨화학상 수상자, 로버트 그럽스 교수 이화노벨렉쳐

스푸트니크, 교육, 메타시시스



이화학술원 석좌교수이자 2005년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그럽스(Robert H. Grubbs) 교수가 10월 7일 '스푸트니크와 교육과 메타시시스(Sputnik, education and metathesis)'를 주제로 '2009 이화노벨렉쳐'의 연사로 나섰다.

'2009 이화노벨렉쳐' 시리즈로는 2006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조지 F. 스무트 교수, 2008년 노벨문학상 수상자 장 마리 구스타브 르 클레지오 교수, 200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무하마드 유누스 그라민은행 총재에 이은 네 번째 강연이다.

로버트 그럽스 교수는 지난 12월 1일 교육과학기술부의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orld Class University; WCU) 육성사업으로 선정된 '촉매반응과 합성'에 대해 본교 연구진과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화학술원과 본교 WCU 촉매반응합성단이 주최하는 이번 노벨 렉쳐에서 그럽스 교수는 본인에게 노벨상을 안겨준 '메타시시스'에 대해 강연을 펼쳤다. 메타시시스(Metathesis)는 그리스어 Meta(Change)와 Thesis(Position)의 합성어로 복분해 혹은 상호자리 교환을 의미한다. 그럽스 교수는 러시아가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 스푸트니크호를 발사하자 이에 자극받은 미국 정부가 기초과학 및 과학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분위기 속에서 화학분야 연구를 시작, 유기화합물을 합성하는 혁명적인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는 '메타시시스'를 개발하게 됐다.

그럽스 교수는 현재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화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2007년 이화학술원 해외석좌교수로 위촉됐다.



영국 에너지 · 기후변화부부장관, 본교 재학생들과 기후변화 문제 논의

"개인의 작은 실천이 지구를 살린다"

영국 조안 러독(Joan Ruddock) 에너지 · 기후변화부 부장관이 8월 11일, '긍정적인 변화를 위하여: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행동의 중요성'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갖고, 글로벌 화두인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본교 학생들과 의견을 나눴다.

러독 부장관은 특강을 통해 '위협' '선택' '행동'이라는 키워드로 기후변화 문제를 압축했다. 기후변화로 인해 인류가 '위협'을 받고 있지만, "변화할 기회가 남아 있다"며 변화를 위한 개인의 선택과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특강에는 230여 명의 학생들이 강의실을 가득 채워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질의응답시간에는 기후변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활동하기 위한 동기화의 문제, 한국 정부의 역할 등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최윤정(국제학부 · 06)씨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여성들이 정작 정책수립과정에서는 소외되어 있다"며 정책 수립에 있어 여성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물었다.

러독 부장관은 "의회의 어머니라 불리는 영국 의회에서조차 여성은 20% 수준"이라며 젊고 똑똑한 젊은 여성들은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 치밀한 전략과 교육, 그리고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강에 참석한 서유진(컴퓨터전자정보 · 07)씨는 "비오는 날에도 강의실을 가득 메운 이화인들의 열기에 놀랐다"며, "특강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심각성을 느낄 수 있었고, 개개인의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 지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다.



미국 하와이대 에드워드 슐츠 교수, 이화학술원 특강

고려의 16대 임금 예종

지난 10월 20일 미국 하와이대 교수인 에드워드 J. 슐츠(Edward J. Shultz) 교수가 '제11회 이화학술원 강좌'에서 '고려 제16대 왕, 예종'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현재 하와이대학 아시아태평양연구학부장을 맡고 있는 에드워드 슐츠 교수는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했지만 평화봉사단의 일원으로 한국을 방문했다가 한국 역사에 매료돼 한국학 연구를 시작했다.

이날 특강에서 슐츠 교수는 "예종 시기의 고려는 국가와 사회를 통치하기 위한 제도들이 안정되고 제도간의 조화가 이루어졌던 시기였다. 학자들은 자유로이 중국과 교류하며 중국의 신지식을 받아들이고 연구를 진행했던 시기이기도 했다"며, 학문적으로 융성했고 국내외적으로 평화로운 정치사회적 배경으로 고려의 문화가 꽃피었던 예종 시대를 집중 조명했다.

한국인도 익숙하지 않은 한국사 이야기를 유창한 한국어로 설명한 슐츠 교수는 해외에서 한국사를 연구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한파 학자이다.

학생수상소식

계속되는 수상행진, 이화인들의 빛나는 저력


무용학과 김하예린 씨


소비자학과 박민정 씨


소비자학과 이승희 씨

김하예린 씨, 일본 쯔쿠바 국제발레콩쿠르 최우수상 수상

일반대학원 무용학과에 재학 중인 김하예린(22세)씨가 8월 22~26일까지 열린 일본 '쯔쿠바 국제발레콩쿠르'에서 만점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총 688명이 참가한 콩쿠르에서 김하예린 씨는 발레 '컨템퍼러리 버진 하트'로 심사위원 10명 전원 만점을 받았다.

김 씨는 2003년 한국 발레 콩쿠르최우수상, 동아콩쿠르 은상, 2005년 한국무용교사협회 대상, 2006년 베를린국제무용올림픽 발레 레벨4부문 동상을 수상했으며, 올해에는 뉴욕 국제 콩쿠르 갈라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 있다. 대학원생이지만, 서울종합예술학교 강사로서도 활동 중인 김 씨는 "앞으로 감동을 줄 수 있는 무용가이자 안무가, 지도자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일반대학원 소비자학과 박민정 · 이승희 씨 공모전 수상

일반대학원 소비자학과 박민정(박사 1학기)씨는 8월 26~30일까지 춘천에서 개최된 '제5회 춘천국제여가심포지엄'에서 '사이버 여가생활에서 나타나는 청소년의 소비행동 분석'에 대한 논문으로 '우수논문 영 스콜라상'을 수상했다.

일반대학원 소비자학과 이승희(석사 3학기)씨는 지난 7월 22일 애경그룹에서 개최한 '제1회 아이디어 페스티벌'에서 'Tyrosinase 억제능이 있는 미생물을 이용한 천연 미백기능성 제품 브랜드' 아이디어로 도전상(3등)을 수상했다.


(왼쪽부터) 문소정, 신윤용 교수, 강보미, 권인혜 씨

생명약학부 대학원생팀, '2009 아시아독성학회' 우수발표자로 선정

일반대학원 생명약학부 위생약학실팀(강보미, 권인혜, 문소정 씨 · 석사과정 4학기)이 9월 9일 타이완에서 개최된 '2009 아시아독성학회'에서 우수 발표자로 선정됐다.

본교팀은 'Omics 기술'을 이용해 화학물질의 발암독성을 예측하는 생체지표를 발굴 · 검증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Omics 기술'이란 유전체(genomics), 단백체(proteomics), 대사체(metaboloics) 기술을 결합해 사용하는 신기술로, 기존 평가법에 비해 비용을 크게 줄일 뿐 아니라 실험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

경영전문대학원 이목윤 씨, 미국 환경부 최우수 국제인턴상 수상


이목윤 씨

경영전문대학원 이목윤(석사 4학기)씨가 미국 환경부가 수여하는 최우수 국제인턴상을 수상했다.

지난 1월 세계적 국제인턴 전문기관인 TWC와 경영전문대학의 '국제인턴 상호 교류프로그램'에 선발된 이 씨는 4개월간 미국 환경부에 인턴으로 근무하며, 인턴 리크루팅 프로젝트의 리더로써 리더십을 발휘하고 신입사원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핸드북 제작 및 사내 신문 편집을 총괄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국제인턴상을 수상했다.

공간디자인학과 장유경, 은연화, 김성은 씨 미샤디자인공모전 동상 수상



(왼쪽부터) 장유경, 은연화, 김성은 씨

공간디자인학과 재학생인 장유경(05), 은연화(06), 김성은(06)씨가 지난 8월 21일 '제3회 미샤디자인공모전' 매장 인테리어 디자인 부문에서 동상을 차지했다.

올해 미샤디자인공모전에는 화장품 용기 및 패키지 디자인, 매장 인테리어 디자인, 지면광고 디자인의 3개 분야를 통틀어 약 500개 팀이 응모했으며, 그 중 본교 재학생들이 매장 인테리어 디자인 부문에서 'Stack your prode'란 작품으로 동상을 차지했다.

전국 시골마을 청소년, 소외계층 찾아간 이화봉사단

"올 여름 전국을 강타한 이화인의 사랑!"





2009년 여름에도 '이화봉사단'이 전국의 시골마을 청소년들과 소외계층을 찾아가 각자의 전공 지식과 재능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영월, 거창, 장수, 군산, 영암 등 전국의 시골마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이화 재능 봉사는 재학생 83명이 총 13곳을 방문해 재미있고 다양한 학습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6~7명으로 조를 짜서 움직이는 이화 재능봉사단은 해당 지역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교과목 외에도 영어와 과학, 체육, 음악, 미술 등의 다양한 예체능 수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수업 내용은 영어 노래 배우기, 영어 골든벨 게임, 유목화그리기, 미니 올림픽, 생활 속 과학실험, 공예 체험 등 대도시 과외 수업 부럽지 않은 프로그램으로 전문적이고 재미있게 구성됐다.

주요 지역별 봉사 일정은 △전북 군산: 7월 21일부터 24일까지(3박4일) '책과 함께하는 3박4일(독서지도, 학습지도 등)' △충북 청주: 7월 27일부터 31일까지(4박5일) '역사문화 어드벤쳐(공예체험학습, 향토문화체험, 문화체험 그림그리기 등)' △강원도 영월: 8월 3일부터 8월 7일(4박5일)까지 '석정여중 교육봉사(국어 · 수학 · 영어교실 운영, 과학실험 등)' △경북 구미: 8월 3일부터 7일(4박5일) '숨겨진 나를 찾기(역할극, 낱말 퀴즈, 직업체험, 요리실습 등)' 등으로 진행됐다.





또한 강원도 춘천에서 진행된 무주택자를 위한 건축봉사활동에도 이화 건축봉사단 20여 명이 참여해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직접 건축 자재를 나르고 지붕을 얹는 등 집짓기 봉사를 함께했다.

'2009 이화 JOB CONCERT' 개최

캠퍼스에서 열리는 취업 박람회



경력개발센터(원장 함인희 교수)는 새 학기 개강을 맞아 9월 2일~3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ECC 다목적홀에서 '2009 이화 JOB CONCERT'를 개최했다. 이번 '이화 JOB CONCERT'에는 삼성, SK, CJ 등의 그룹 계열사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 산업은행, NHN, 다음 등 30여 개의 국내외 주요 기업들이 대거 참석했다.

행사기간 동안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현장 채용상담 및 면접을 진행하고, 국 · 영문 취업 서류클리닉, 영어 인터뷰 클리닉, 직무별 진로 컨설팅, 이력서 사진 무료 촬영 서비스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됐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현장 상담이 이뤄졌으며, 박람회장까지 교내 셔틀버스도 임시 운행됐다.

올해 JOB CONCERT는 지난해보다 참여 기업도 확대되고 프로그램들도 다양해져 박람회 기간 동안 많은 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외국인 학생과 함께하는 추석 한마당

한복입고 윷놀이해요



'외국인 학생과 함께하는 추석 한마당(International Chuseok Festival)'이 10월 6일 학생문화관 앞 숲에서 펼쳐졌다. 이화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학생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국제대학원, 언어교육원, EGPP 장학생 등 약 500명의 외국인 학생이 참여해 투호놀이, 한복입기 체험, 윷놀이, 전통 돌림판 등 민속놀이는 물론 태권쇼, 비보이공연 등 한국의 전통과 현대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석한 케빈 리차드슨(미시간주립대학)씨는 "동아시아문화를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한국의 전통을 직접 체험하게 되어 인상깊다"고 말했다. 푸 찌아인(베이징대학)씨는 "내가 이화의 한가족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행사였다"며 "이화 역시 나의 또다른 고향이 될 것 같다"고 행사에 참가한 소감을 밝혔다.

2009학년도 제1·2학기 교원 보직 인사

이니셔티브 이화 주도할 새 진용 정비

2009학년도 제1학기 교원 보직발령(2009.3.1~2009.7.31)

보직명	성명	소속	비고
신재생에너지연구센터장	조월렴	물리학	신설
공연문화연구센터소장	이명선	보건관리학	신설
장애학생지원센터소장	차미경	문헌정보학	신설
학생상담센터실장	주영아	학생상담센터	신설
대학원바이오융합과학과장	정낙신	바이오융합과학	신설

2009학년도 제2학기 교원 보직발령(2009.8.1자)

보직명	성명	소속	비고
의무부총장	서현숙	의학	유임
사회복지전문대학원장 사회복지대학원장	김미혜	사회복지학	
디자인대학원장	김혜연	패션디자인	
조형예술대학장	강석영	도자예술	
스크랜튼대학장	김헌민	행정학	
평생교육원부원장	정순희	소비자학	
교무처부처장	이혜원	심리학	유임
학생처부처장	이해영	한국학	
재무처부처장(시설)	김정태	전자공학	
국제교류처부처장	Jean S. Kang (강지현)	국제학	유임
교양영어실장	김민정	영어영문학	
학생상담센터소장 양성평등센터소장 장애학생지원센터소장	이해영	한국학	
교목	양명수	기독교학	
교목	양현혜	기독교학	유임
R&D혁신단장	박영일	디지털미디어학	유임
이화리더십개발원부원장	강민아	행정학	유임
이화미디어센터주간	류철균	디지털미디어학	
이화미디어센터부주간	최윤정	언론홍보영상학	
언어교육원장	양혜순	영어교육	
정보통신연구소장	김낙명	전자공학	
IGI원장	용환승	컴퓨터공학	유임
지능형나노바이오 소재연구센터소장	최진호	바이오융합과학	유임
글로벌협력센터소장	김은미	국제학	유임
통역번역연구소장	김혜림	번역학	
생명의료법연구소장	장영민	법학	유임
사회과학연구소장	조성남	사회학	유임
이화·하이닉스반도체 공동연구소장	신형순	전자공학	유임
음악연구소장	박신화	성악	유임
도예연구소장	강석영	도자예술	유임
인간생활환경연구소장	도현심	심리학	
아시아식품영양연구소장	장남수	식품영양학	
의료원장	서현숙	의학	유임
목동병원장	김승철	의학	
국제대학원교학부장 국제대학원한국학과장 한국학과장	김영규	한국학	유임
국제대학원국제학과장	Jasper S. Kim	국제학	



김미혜 사회복지전문대학원장



김혜연 디자인대학원장



강석영 조형예술대학장



김헌민 스크랜튼대학장

보직명	성명	소속	비고
통역번역대학원부원장	이진영	통역학	
사회복지전문대학원교학부장 사회복지대학원교학부장 사회복지학전공주임교수	조상미	사회복지학	
의학전문대학원학생부원장 의과대학학생부장	김용재	의학	
법학전문대학원부원장 법학전문대학원행정관리부장 법과대학교학부장	한만수	법학	
교육대학원교학부장	서 혁	국어교육	
정책과학대학원교학부장 정보과학대학원교학부장	김세완	경제학	
임상보건과학대학원교학부장	이병구	약학	
TESOL대학원교학부장	신상근	영어교육	신설
대학원의과학과장 대학원의학과장	서석효	의학	신설
통역번역대학원통역학과장	박혜경	통역학	
인문과학대학교학부장	정희성	기독교학	
인문과학부장	최형용	국어국문학	

보직명	성명	소속	비고
기독교학부장 기독교학전공주임교수	정희성	기독교학	
국어국문학전공주임교수	최형용	국어국문학	
독어독문학전공주임교수	최성만	독어독문학	
철학전공주임교수	이지애	철학	유임
미술사학과장	홍선표	미술사학	
언론홍보영상학부장 언론홍보영상학전공주임교수	홍종필	언론홍보영상학	
행정학전공주임교수	조정래	행정학	
심리학전공주임교수	이승연	심리학	유임
여성학과장	정지영	여성학	
도자예술전공주임교수	김미경	도자예술	
교육공학과장	강명희	교육공학	유임
영어교육과장	한종임	영어교육	
국어교육과장	김은성	국어교육	
수학교육과장	이종희	수학교육	
식품영양학과장	장남수	식품영양학	
약학대학교학부장 약학과장	서은경	약학	
예방의학교실주임교수	이선희	의학	유임
의학교육학교실주임교수	한재진	의학	유임
피부과학교실주임교수	최혜영	의학	유임
외과학교실주임교수	이주호	의학	
방사선종양학교실주임교수	이경자	의학	유임
미술사학연계전공주임교수	홍선표	미술사학	
여성학연계전공주임교수	정지영	여성학	
멀티미디어학연계 전공주임교수	강명희	교육공학	유임
전문영어연계전공주임교수	김민정	영어영문학	
한국학연계전공주임교수	김영규	한국학	유임

2009학년도 제2학기 교원 보직발령(2009.9.1자)

보직명	성명	소속	비고
교양교육원장	최민숙	독어독문학	신설
예술교육치료연구소장	정현주	교육학(교대원)	신설

2009학년도 2학기 신임교수

대학(원)	전공/학과	교수명	성별	직위	최종출신학교	최종학위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Jennifer Sejin Oh	여	전임강사	Princeton Univ.	Ph.D
자연과학대학	통계학전공	정환	남	부교수	Pennsylvania State Univ.	Ph.D
음악대학	건반악기전공	김원	남	조교수	(오)Universitat Mozarteum	Diplom
사범대학	과학교육과	신동희	여	부교수	Columbia Univ.	Ph.D
경영대학	경영학전공	이종국	남	전임강사	Univ. of Illinois(Urbana-Champaign)	Ph.D
경영대학	경영학전공	안지영	여	전임강사	Univ. of Illinois(Urbana-Champaign)	Ph.D
이화인문과학원		신상규	남	조교수	Univ. of Texas/Austin	Ph.D



Jennifer Sejin Oh



정환



김원



신동희



이종국



안지영



신상규

정년퇴임 교수 프로필

'이화교육에 헌신한 발자취들'

하종식 교수 (의학, 24년)



하종식 교수는 생리학, 인체생리학 등 생리학 교과서, 생리학 실습교과서를 집필하는 한편, 우수 의학자 양성과 기초의학(생리학)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International Union of Physiological Science, American Physiological Society, 대한생리학회, 한국분자생물학회, 한국노화학회 등에서 활동했으며, 대한생리학회 FAOPS 준비위원으로 2006년 FAOPS 개최를 이끌었고, 대한생리학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의예과장, 생명과학연구소장 등 보직을 거치면서 의과대학 발전에 공헌했다.

윤견일 교수 (의학, 33년 8개월)



윤견일 교수는 신장과 고혈압 분야에서 탁월한 진료와 창의적 업적을 이루었다. 신장질환, 전해질-수분 균형, 고혈압 등에 대한 논문들을 국내외 유수 학술지에 다수 발표했으며, 수편의 신장학 교과서의 저술에도 관여하는 등의 연구업적을 인정받아 신장학회의 중외학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동대문병원장, 의료원장, 의무부총장 등을 역임하며 의과대학과 이화의료원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김영후 교수 (의학, 5년 10개월)



김영후 교수는 슬관절 및 고관절의 인공관절 분야의 괄목할만한 진보를 이끌었다. 특히 고관절 인공관절수명을 극대화할 수 있는 Proxima Hip™을 개발해 재수술의 빈도를 현격히 감소시킴으로써 국내외 환자의 복지와 의료비 절감에 기여했다. 그 외에 미국정형외과학회를 비롯한 세계 학회는 물론 세계 최고의 정형외과 SCI저널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김현자 교수 (국어국문학, 27년 6개월)

김현자 교수는 '메타포', '상상력'과 같은 개념을 한국시문학 연구에 도입해 '텍스트 분석의 방법론'



을 발전시켰으며 한국문학의 근원적 상상력과 미적 구조를 밝히는 연구 분야를 개척해왔다. '한국시학회' 여성 최초 학회장, '기호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학계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 또한 본교 국어국문학과장, 인문대교학과장, 한국어문학연구소장, 한국문화연구원장, 입학처장, 인문과학대학장을 두루 역임했다.

윤금희 교수 (건반악기, 27년 6개월)



윤금희 교수는 1982년 부임해 제자 양성에 힘썼으며 3년간 종교음악과장을 3년 동안 역임했다. 재직 기간 동안 피아노과장, 음악연구소장으로 본교 음악대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18세기 Piano Etude에 대한 연구', 'Chopin Ballade에 관한 연구', '무소르그스키 전람회 그림에 관한 연구' 등의 뛰어난 학문적 업적을 남겼다.

원문자 교수 (동양화, 26년 6개월)



원문자 교수는 조형대학 동양화과에 재직하면서 후학 양성은 물론, 학교 발전과 한국 미술계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국전 국회의장상, 대통령상, 석주 미술상, 기독교 미술상 등의 수상을 통해 대외적인 명성을 쌓았다. 또한 동양화과장, 한국화전공교수주임 등의 여러 보직을 역임하면서 본교 발전에 공헌했다. 국전심사위원, 중앙미술대전 운영위원, 서울미술대전 추진위원,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장 등 주요 단체에서 한국 미술계의 성장을 이끌었다.

조규화 교수 (의류학, 25년 6개월)



일본 오차노미즈여자대학에서 복식미학 분야로 일본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은 조규화 교수는 한국의 복식미학 연구를 주도했다. 복식미학, 패션미학 등 10여 권의 저서를 출간했고 문화관광부 · 산업자원부 ·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연계해 의류 · 패션용어순화집을 발간하는 한편, 국내 최초로 복식사전을 펴냈다. 본교 재직시 생활현장과 산업현장 중심의 교육과 연구, 산학협동, 일본 자매교와의 국제교류 등을 추진하기도 했다.

김영걸 교수 (영어교육, 25년)



김영걸 교수는 영어교육학과에 재직하면서 영문학 과목은 물론 영문학을 중등 영어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와 강의를 진행하며 영문학 교과의 내용 선정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많은 공헌을 했다. 또한 영어연극반 지도교수로서 헌신했으며, 학보사 부주간으로 영자 신문 Ewha Voice를 담당해 Ewha Voice의 기초를 닦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유계화 교수 (과학교육, 25년 6개월)



유계화 교수는 1984년부터 과학교육학과 지구과학전공에 재직하면서 후학 양성에 크게 공헌했다. 우수한 과학교사 및 과학자 양성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교내 종합과학관의 천문대 돔 설치를 적극 추진해 많은 학생들이 과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었다. '공생형 별 AG PEGASI의 고해상 스펙트럼'과 '점성원반의 붕괴' 등의 연구를 통해 천체역학 및 천문학자로서 뛰어난 학문적 업적을 쌓았다.

김화영 교수 (식품영양학, 26년)



김화영 교수는 미개척분야였던 '임상영양학'의 기반을 다졌으며, '면역영양학', '노인영양학'에서도 창의적 업적을 남겼다. 다수의 국내외 논문과 저서들로 과학기술 우수논문상, Outstanding Alumni Award 등을 수상하는 한편, 올해 1월 의학한림원 회원으로 선임됐다. 한국영양학회, 한국노화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1990년부터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개정작업에 참여해 우리 국민의 올바른 식생활 정착에 기여했다.

박일흥 교수팀 우주망원경 탑재 인공위성 발사 성공

세계 최초 신개념 추적우주망원경



MEMS 우주망원경 창의연구단(단장 박일흥 교수)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추적우주망원경을 실은 러시아 로켓 '소유즈-2'가 9월 18일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로켓에 탑재된 인공위성의 추적우주망원경은 향후 1년 이상 지구를 관측해 최근 '메가번개'로 소개되고 있는 고층대기의 극한방전 현상을 규명할 예정이다.

남원우 교수팀 연구논문 네이처 케미스트리 게재

산소화 효소 화학반응 중간체 구조 규명


남원우 교수


조재흥 박사

바이오융합과학과 남원우 교수팀(남원우 · 조재흥 박사)이 산소를 전달하면서 활성화하는 산소 관련 효소의 화학반응에서 순간적으로 존재하는 중간체 구조를 밝혀냈다.

이번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 '리더연구자지원사업 창의적 연구'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으며, 연구논문은 국내 화학계 최초로, 네이처 케미스트리에 9월 23일자로 게재됐다.

교수수상소식

강형구 교수, 2009년 세계전략경영학회 최고 논문 수상



10월 13일 워싱턴D.C에서 열린 '2009년 세계전략경영학회'에서 세계전략경영학회 최고 논문상을 수상했다. 전략경영협회는 전략경영과 관련해 세계 최대 규모, 최고 권위의 단체로 알려져 있다. 강 교수는 최초의 한국인 입상자이기도 하다.

이미애 교수, 대한임상미생물학회 최우수 논문상 수상



제 12차 대한임상미생물학회 종합학술대회에서 '한국에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주의 클래리스로마이신 내성 23S rRNA 유전자 점돌연변이의 빈도에 대한 다기관연구'로 2009년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최병옥 교수, Brain 저널 '올해의 우수 논문' 선정



'미토푸신 2 유전자 돌연변이를 가진 조기 발병 중증 샤르코-마리-투스 질환과 후기 발병 경증 샤르코-마리-투스 질환'이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술지인 'Brain'지에 우수논문'으로 선정됐다.

교수동정

경영학과 박재흥 교수, 한국 소비자안전협회장 선임

8월 1일 사단법인 한국 소비자안전협회 회장으로 선임돼 취임식을 가졌다.

음악대학 관현악과 배종선 교수, 이화 플루트 앙상블 연주회 협연

9월 3일 세종 체임버홀에서 진행하는 '이화 플루트 앙상블 연주회'에서 협연했다.

의과대학 정성애, 태정현, 이미애 교수 국내 최초 항생제 유발 장염 독성 균주 발견

7월 SCI 학술지인 대한의학회지에 '클로스트리듐 디피실 PCR 리보타입 027균에 의한 중증 항생제 관련 장염을 보인 한국의 첫 번째 사례'란 논문을 발표했다.

보건관리학과 김명 교수, 보건교육사 시험위원회 위원장 위촉

지난 7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2년간의 임기로 보건의료인국가시험위원회 위원 및 보건교육사 시험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경영대학 윤정구 교수, 신간 출간

지난 1년간 Russell Sage Foundation에서 연구기금을 받아 동료연구자인 Edward J. Lawler와 Shane R. Thye와 'Social Commitments in a Depersonalized World'라는 저서를 출간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오수근 교수, UNCITRAL 본 회의 의장 선출

한국인 최초로 6월 29일~7월 17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42차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본회의 의장으로 선출됐다.

컴퓨터공학전공 김명희 교수, fib conference 2009에서 기조연설

김명희 교수는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린 '제1회 공학과 과학에서의 여성의 다양성에 대한 유럽 국제 컨퍼런스'에서 'College of Engineering at World's Largest University for Women: Best Practices from Ewha, Korea'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무용과 김명숙 교수, 2009 춤으로 그리는 사계 '想 · 想II' 공연

9월 9일 예술의전당 토월극장에서 2009 춤으로 그리는 사계 〈想 · 想II〉를 공연했다. 특히 이번 공연의 연주 및 음악감독은 황병기 명예교수가 맡았으며, 그래픽 영상에는 조형예술대 최유미 교수가 참여했다.

2009학년도 2학기 연구년 개시 교원

1년 연구년 김원용(디지털미디어학), 양옥경(사회복지학), 조민선(의학), 양현종(의학), 최희정(의학), 이현국(의학), 이정희(의학), 김미현(국어국문학), 이근주(행정학), 김성현(경제학), 김훈순(언론홍보영상학), 조순경(여성학), 김광수(건축학), 차영순(섬유예술), 허명(과학교육), 이용하(수학교육), 김정권(경영학), 변영순(간호과학), 김양하(식품영양학), 이공주(약학)

1년(분할)연구년 이유희(통역학), 정현주(교육학 교대원), 노충래(사회복지학), 홍석표(중어중문학), 장미영(독어독문학), 정동열(문헌정보학), 한평림(화학 · 나노과학), 김명(컴퓨터공학), 이미정(컴퓨터공학), 김정호(전자공학), 이승진(약학)

반년연구년 박혜경(의학), 최정윤(의학), 이선화(의학), 정태윤(법학), 김혜숙(철학), 김홍남(미술사학), 천혜정(소비자학), 최선열(언론홍보영상학), 이병욱(전자공학), 김광옥(식품공학), 함영림(건반악기), 이영희(시각디자인), 박성연(경영학), 함정혜(체육과학)

반년+수업경감 연구년 윤주영(바이오융합과학)

수업경감연구년 양명조(법학), 용환승(컴퓨터공학), 최혜선(의류학), 강순희(과학교육), 강혜련(경영학)

2009학년도 2학기 우수 교원

강의우수 **전임교원** 김대인(법학), 이윤진(수학), 정우진(생명과학), 최연희(영어교육), 김희진(유아교육), **시간강사** 홍인숙(국어국문학), 김경희(철학), 황혜진(과학교육)

2009학년도 2학기 승진 교원

교수 김동근(교목실), 윤주영(바이오융합과학), 정성철(의학), 김희선(의학), 이지수(의학), 유재두(의학), 변성완(의학), 백희정(의학), 홍선표(미술사학), 방희정(심리학), 박일흥(물리학), 오구택(생명과학), 김상곤(성악), 신상미(무용)

부교수 이유희(통역학), 민석기(의학), 이희승(의학), 방은경(의학), 박은진(의학), 김현철(법학), 양현혜(기독교학), 송종우(통계학), 정우진(생명과학), 김정호(전자공학), 정병욱(경영학), 창동신(약학), 황은숙(약학)

조교수 조상미(사회복지학), 배현아(법학), 황준호(영어영문학), 정은경(문헌정보학), 민혜숙(교양영어실), Bruce D. Barnes(교양영어실)


박물관



국제대학원



한국학과


컴퓨터그래픽스 연구실



탈경계인문학연구단


이화·하이닉스반도체 공동연구소



한국어교육센터

2009 박물관, 가을 특별전 개막

박물관에서는 가을의 향기를 담아 9월 14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촙 – 영원 그리고 향유'라는 전시를 연다. 이번 전시에서는 예로부터 현재까지의 향의 기원과 양상을 본관 소장의 우리 유물을 통해 문화사적으로 되짚어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시각예술을 넘어서서 복합 감각적으로 표현 영역을 확장시켜가는 현 세대의 예술형태도 감상할 수 있다.

이화인문과학원 탈경계인문학연구단, 국제학술대회 개최

인문한국사업(HK) 탈경계인문학 연구단(단장 오정화 교수)은 9월 4~5일 양일간 LG컨벤션홀에서 '타자 다시 위치 짓기: 타자의 문화정치학'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총 7개국 25명의 국내외 학자들이 발표자 및 토론자로 참여해 각기 다른 국가와 문화, 그리고 학문적 관점의 차이에 따라 다양하고도 풍성한 담론이 이루어졌다.

문헌정보학과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개최

문헌정보학과는 창립 50주년을 맞아 11월 6일 ECC 이삼봉홀에서 기념행사를 가졌다.

오후 2시30분부터 7시30분까지 개최된 50주년 기념행사는 기념식, 기념강연, 동창의 밤 순으로 진행됐다.

국제대학원, 졸업기념식 진행

국제대학원은 8월 28일 2008학년도 후기 졸업식 후 행사를 갖고 교수, 재학생, 졸업생 및 졸업생가족 등 13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졸업생을 축하하는 각종 행사를 마련했다. 외국인학생들로 구성된 중창단 '마중물(Priming Water)'의 축하무대와 본교 GSIS 재학생으로만 구성된 GSIS Trio(바이올린, 첼로, 피아노)의 연주도 진행됐다.

언어교육원, 몽골 대학생 장학생 초청

언어교육원은 지난 4월, 몽골 울란바타르 대학에서 한국 국립국제교육원 주최로 열린 몽골 한국 유학 박람회와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및 몽골 인문대학 한국학과가 주최한 몽골 대학생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 참석했다.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1등을 차지한 온드라흐 바야르 학생에게 언어교육원 한국어 집중과정 1학기 장학금 등이 제공됐다.

2009학년도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졸업전시회 개최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에서는 9월 16일부터 21일까지 아산공학관 2층 전시실에서 졸업논문 전시회를 개최했다. 건축공학 전공분리 이후 건축공학전공 첫 번째 졸업생인 06학번 졸업예정자들과 기존 건축학과 학생 중 건축공학 관련 주제를 선택한 졸업예정자들이 결과물을 전시하는 기회를 가졌다.

한국어교육연구센터 '인턴십 사전 훈련 교육' 실시

국제대학원 산하 한국어교육연구센터(센터장 최준식 교수)가 지난 6월 16일 '인턴십 사전 훈련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한국어교육연구센터가 주관하고 국제대학원 한국학과와 언어교육원 한국어교육부가 공동 주최한 '인턴십 사전 훈련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국외에서 원활한 한국어교육 인턴십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이화 · 하이닉스반도체 공동연구소 대학원 강좌 개설 운영

이화 · 하이닉스반도체 공동연구소는 BK산학협동의 일환으로 2009년 2학기 '고급 반도체 특론 II'이라는 대학원 강좌를 개설하고 현재 산업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첨단 기술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인문 이화' 창간호 발행



인문과학대학에서는 인문과학대학 소식지 '인문 이화' 창간호를 지난 7월 31일자로 발행했다.

'인문 이화'는 인문과학대학 교수들의 학술 활동과 연구 발표, 학생 활동 등을 소개함으로써 인문학 발전과 전공 간의 소통을 이루기 위해 제작됐다.

컴퓨터그래픽스 연구실, 미국 그래픽스 학술대회 참석

컴퓨터공학과 김영준 교수가 지도하는 컴퓨터그래픽스 연구실은 8월 3일~7일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개최된 정기 그래픽스 학술대회인 'ACM SIGGRAPH2009'에 참가해 세계 최초로 실시간 하우스도르프 거리 계산 방법을 발표했다.

한국학과, '2009 동남아 교육자 한국학 워크숍' 개최

8월 24일부터 9월 6일까지 본교 국제대학원 한국학과가 주관하고 국제교류재단이 주최한 '2009 동남아 교육자 한국학 워크숍'이 개최됐다. 동남아 교육자 한국학 워크숍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한국의 역사, 문화, 정치, 사회 등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과 인식을 고취하고, 이를 통한 교류 증진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워크숍으로 올해로 4회째를 맞는다.

이대여성암전문병원, 이화 123년 홍보 공간 마련

이대여성암전문병원의 다목적실이 '이화 역사 홍보의 장' 으로 새롭게 탈바꿈했다.

이화의료원의 전신인 보구여관(保救女館)은 당시 '남자들이 경영하는 병원에 여자들이 갈 수 없는 한국의 전통적인 관습' 속에서 여성을 위해 1887년에 설립된 최초의 여성 전용 병원으로, 그 선구자적 정신과 그동안 축적된 교육, 연구, 진료에서의 노하우가 현재까지 이어져 여성암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이대여성암전문병원의 토대가 되었다.


다목적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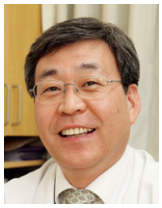

보구여관

이대여성암전문병원이 이를 기리기 위해 환자나 보호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 대기 공간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다목적실에 이화의 역사를 홍보하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한 것.

현재 다목적실에는 한국 최초의 사립 여성 교육 기관이었던 '이화학당' 과 한국 최초의 여성 전용 병원인 보구여관(保救女館) 전경, 이화학당의 창립자인 메리 F. 스크랜튼 여사의 사진 등 다양한 사진들이 이대여성암전문병원을 찾는 고객들에게 선보여진다. 또한 보구여관에서 헌신적인 의료 활동 및 선교에 생애를 바친 한국 최초의 여의사 박 에스더 선생의 흉상이 자리해 내원객을 맞이하고 다목적실의 한편에는 이화 교표의 변천사가 양각 조형물로 설치되어 123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화' 의 발자취를 볼 수 있다.

'2009 브랜드마케팅 대상', 여성암전문병원부문 수상

차별화된 진료환경과 여성고객 타겟 마케팅 주효



122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화의료원이 한국일보사의 '주간 한국' 에서 주최한 '2009 브랜드마케팅 대상' 을 수상했다.

여성암을 특화해 지난 3월 문을 연 이대여성암전문병원(병원장 김승철)은 대학병원 중 가장 신속한 진료 시스템과 여성 환자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차별화된 진료환경을 표방해 여성암환자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유방암 · 갑상선암센터와 부인암센터 등 2개의 전문암센터로 구성된 이대여성암전문병원은 지난 3~6월 외래 환자 수를 집계한 결과 월 평균 342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이대목동병원 유방암 · 갑상선암 및 부인암 분야의 여성 외래환자 수 대비 46% 증가했다. 특히 유방암 · 갑상선암환자가 크게 늘어나 같은 기간 유방암 · 갑상선암센터 외래환자 수는 지난해 대비 54%나 늘었다.

이화의료원, 강서구 치매지원센터 수탁 운영 협약

치매 환자에게 체계적, 통합적 의료 서비스 제공



강서구청(구청장 김재현)과 이화의료원은 8월 12일 강서구 치매지원센터 위 · 수탁 기관 협약식을 가졌다.

강서구 치매지원센터는 치매 기본검진을 비롯해 치매 환자 등록관리, 재활치료, 치매 예방 교육 등을 통해 치매 환자들에게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센터장에는 이대목동병원 신경과 정지향 교수가 내정되었으며 신경과 전문의, 간호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12명의 전문 인력이 상주하게 된다.

이대목동병원장에 김승철 이대여성암전문병원장 임명

제12대 이화의료원장에 서현숙 의료원장 연임



제12대 이화여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으로 현 서현숙 의료원장(방사선종양학과)이 연임됐다. 제8대 이대목동병원장에는 김승철 이대여성암전문병원장(산부인과)이 신규 임명됐다. 임기는 8월 1일부터 2년이다.

직원 인사발령 (2009년 9월 1일자)

소속	성명	발령사항
박물관	최정희	암: 사무직원


최정희

정년 · 명예 · 희망퇴직 직원 명단 (2009년 8월 31일자)

구분	소속	성명	직위	근속기간
정년퇴직	통역번역대학원	김신혜	사무직원(과장)	38년 6개월 근속
	박물관	김인호	사무직원(주임)	29년 근속
	총무과	홍순일	기능직	25년 5개월 근속
명예퇴직	중앙도서관	유경희	사서(과장)	27년 근속
	건강과학대학	김영희	사무직원(주임)	35년 3개월 근속
희망퇴직	시설과	오세호	기능직	19년 4개월 근속


김신혜


김인호


홍순일


유경희


김영희


오세호

노사상생 양보교섭 실천 인증기업 선정

본교가 9월 22일 노동부에서 주관한 '노사상생 양보교섭 실천 인증기업' 으로 선정되어, 2010년 12월 말까지 2년간 인증기업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된다.

'노사상생 양보교섭 실천 기업 인증제' 는 노동부가 올해 5월부터 노사간 양보교섭을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양보교섭 실천기업으로 인증' 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2009년도 상반기 사립대학교 퇴직직원 표창 명단

(훈격: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표창)

김인호, 홍순일, 유경희, 김영희, 오세호

2009년도 하계 전체 직원모임 및 정년 · 명예퇴직 직원 환송예배

8월 19일 학생문화관 소극장에서 2009년도 하계 전체 직원모임 및 정년 · 명예퇴직 직원 환송예배가 개최됐다.

2009년도 전체직원연수

7월 3일과 4일 양일간 강원도 양양 쏠비치호텔에서 전체직원연수가 실시됐다. 총 189명이 참가한 가운데 특강과 레크리에이션, 탐방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출판부 새 책]

디자인 놀이 | 이영희 지음



어린이들이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디자인 관련 놀이 방법들을 소개한 미술교육용 도서로, 무엇보다 고도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대학의 디자인 관련 교과 방법론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단순하게 적용시키고 있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이 책은 아동의 창의력과 예술적 감각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2만3천원〉

시계탑 · 하마단 〈황병기 가야금곡집〉 | 황병기 지음



저자의 7번째 가야금곡집으로서 '시계탑', '하마단', '추천사', '차향이제' 네 곡이 수록되어 있다. '시계탑'은 서울대병원 안에 있는 대한제국 시절의 서양식 건축물로 저자가 입원해 있는 동안 시계탑의 야경에 감동을 받고 가야금과 장구를 위해 작곡한 곡이며, '추천사'는 서정주의 같은 제목의 시를 노래로 작곡한 것이다. 〈1만원〉

지구지역 시대의 문화경계 〈탈경계인문학 학술총서 1〉 | 이화인문과학원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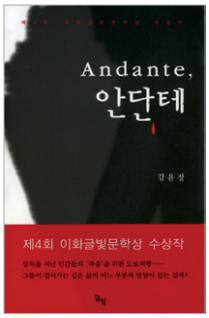
본교 이화인문과학원이 기획한 '탈경계인문학 학술총서'의 첫 권으로, 이 책과 함께 2권 '젠더와 탈/경계의 지형', 3권 '인터-미디어와 탈경계 문화' 또한 출간되었다. 이 총서는 '탈경계인문학'이라는 새로운 인문학적 방향을 모색하는 장기 연구과제로서, '지구지역성', '젠더', '다매체'를 핵심주제로 하여 앞으로 매년 3권씩 10년에 걸쳐 출간될 예정이다. 〈1만5천원〉

국경을 넘는 아시아 여성들 〈아시아여성 총서〉 | 김영옥 외 지음



본교 한국여성연구원이 기획한 '아시아여성 총서'의 첫 권으로, 한국으로 이주해온 아시아 여성들의 삶과 사회적 위치 등을 분석한 연구서이다. 이주 여성들의 삶에 대한 비관적 비판론에만 머물지 않고, 그들을 한국 사회의 변화의 주역으로 바라보면서, 국적과 문화의 차이를 넘어선 지구적 여성 연대 및 창의적 문화 혼종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1만5천원〉

Andante, 안단테 〈제4회 이화글빛문학상 수상작〉 | 강윤정 지음



제4회 이화글빛문학상 수상작으로, 사회성 짙은 소재를 본질적이고 철학적인 문제로 승화시켜 버무리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았다. 납치, 살인 등의 강력 범죄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 암울한 현대 사회 분위기와 경기 불황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고단한 현실이 잘 녹아들어가 있는 소설이다. 〈1만원〉

[출판부 소식]

1. 2009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에 출판부의 책 2종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도서는 『창의성 교육』(초등교육과, 조연순 외), 『고려 시대의 일상 문화』(사학과, 김영미 외)이다.

2. 본교 출판부가 매년 발간하고 있는 〈이화사진일기〉와 〈이화달력〉이 10월 말 출간됐다. 2010년도 〈이화사진일기〉의 주제는 '한국의 금속 장식'(기획: 김보희, 글: 송희경)으로서, 금속장식의 화려하면서도 세련된 아름다움이 돋보인다. 또한 〈2010 이화달력〉은 '조선시대 회화'를 주제로 본교 박물관 소장 그림들을 담았다.

동창회 소식

총동창회 기금마련 바자회

총동창회는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이화·삼성교육문화관 총동창회 대회의실에서 '총동창회 기금마련' 바자회를 열었다. 이번 바자회에는 의류, 구두, 속옷, 아동복, 잡화 등의 물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이화 가족들에게 소개하고 동창회 기금을 마련했다.

시카고 간호대학 동창회

5월 11일 간호대학 시카고 지부의 동창회가 열렸다. 현 시카고 간호대학 동창회장은 5회 졸업생 송기옥 동창으로 이광자 교수가 국제학술대회 참석차 시카고 방문시 동창회를 방문해 본교소식을 전달했다.

[동문동정]

전신애 동문(영어영문학 65년 졸)



미국 일리노이 주정부 최초의 아시아계 장관, 미 노동부 사상 최초의 아시아 출신 여성국장, 한국계 여성 최초의 미 연방정부 차관보, 1950년 이후 미 노동부의 최장수 여성국장을 지낸 전신애 동문이 '너는 99%의 가능성이다'라는 신간을 출간하고 10월 19일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전 동문은 책을 통해 99%의 가능성을 가진 젊은이들에게 배움과 소통 · 리더십 · 자기관리의 1%가 더해진다면 성공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윤금희 동문(기악학 66년 졸)



본교 음악대학 교수로 재직했던 윤금희 동문이 제9회 자랑스런 강원여성상을 수상했다. 윤 동문은 법관인 남편 김종식 씨를 보필하고 3명의 자녀를 모두 전문 직업인으로 키워내 사회에 공헌토록 보살핀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강원도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춘천여고 재경동창회장과 평창 관광엑스포 홍보위원, 대관령국제음악제 운영위원 등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바람직한 강원여성상 정립에 헌신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선정됐다.

김현주 동문(법학 81년 졸)



전 MBC 보도국 문화스포츠에디터(부국장)인 김현주 동문이 10월 12일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1급 상당)에 임명됐다. 정책수석비서관은 지난 4월 국회 사무처 직제 개정에 따라 신설된 직급으로, 의장 1급 비서관에 여성이 임명된 것은 국회 역사상 처음이다. 김 동문은 본교 법학과 졸업 후 1982년부터 2007년까지 MBC 기자로 일해 왔다.

이니셔티브 이화 발전기금 소식

평생교육원 발전후원이사회 파주 교육 · 연구단지 조성기금 5400만원 전달



2009년 6월 18일(목) 본교 평생교육원 발전후원이사회(회장 문정숙)가 파주 교육 · 연구단지 조성기금 5400만원을 전해왔다. 평생교육원은 이배용 총장(제4대 평생교육원장 역임)과의 인연으로 이니셔티브 이화의 비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학교의 발전을 위한 모금에 힘써왔다.

71년 총학임원 일동 파주 교육·연구단지 조성기금 5000만원 기부



2009년 9월 21일(월) 1971학년도 총학생회 임원 일동이 파주캠퍼스 내 기도처 마련을 위해 써달라며 5000만원을 기탁했다. 본교 대외협력처장 최금숙 교수와 후생복지과 박현숙 동문이 이 모임의 일원으로 이번 모금을 제안하고 애써주었다. 박현숙 동문은 학교의 발전을 위해 무언가 역할을 해야겠다는 소박한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지만 이 일을 계기로 더 많은 기부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전했다.

익명의 기부자들 이니셔티브이화발전기금 10억원, 2억원 기부

익명의 한 기부자가 학교의 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파주 교육 · 연구단지 조성기금 10억원을 약정했다. 이 기부자는 이화여대가 파주캠퍼스를 통해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전했다. 한편 또다른 익명의 동창이 평화와 통일, 생명과 환경을 지향하는 파주캠퍼스의 비전에 공감하여 파주 교육 · 연구단지 조성기금 1억원과 글로벌인재육성기금 1억원을 기부했다.

총동창회 김순영 회장 글로벌인재육성장학기금 5000만원 기부



2009년 7월 24일(금)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김순영 회장(약학 62년 졸)이 대외협력처에 장학기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 김순영 회장은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이화여대에 장학금을 기부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본교의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줄 수 있어 기쁜 마음이라며, 이 장학금이 꼭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순영 회장은 지난 2007년 3월 제15대 총동창회장으로 취임했으며, 이니셔티브 이화 발전기금 50억원 모금을 위해 애써왔다.

(주)스타벅스커피코리아 한국 상륙 10주년 맞아 희망장학금 전달



2009년 7월 27일(월)에 스타벅스 이화여대점에서 스타벅스커피코리아가 한국 상륙 10주년을 기념하여 본교 대외협력처와 교내 봉사동아리인 아가뽀뽀, 나누미를 초청해 희망장학금 및 봉사후원금을 전달했다. 이석구 대표이사는 "사회공헌은 특별활동이 아니라 일상적인 것이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일상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타벅스는 교내 ECC에도 입점해 있으며, ECC점은 월매출의 10%를 장학금으로 기탁하여 현재까지 약 1억 1500만원의 장학금을 기부해 왔다.

이니셔티브 이화 발전기금 약정자 명단 (약정기간 : 2009. 6. 13~2009. 9. 30)

〈파주교육 · 연구단지기금〉

동창 국어국문학과 11기 300만원, 국어국문학과 14기 100만원, 강신자(국문 58년 졸) 20만원, 강열자(국문 60년 졸) 5만원, 강은전(국문 60년 졸) 5만원, 구자숙(국문 60년 졸) 10만원, 김경숙(국문 60년 졸) 30만원, 김순희(국문 60년 졸) 5만원, 김은자(국문 60년 졸) 10만원, 김중자(국문 60년 졸) 5만원, 박순자(국문 60년 졸) 5만원, 박종현(국문 60년 졸) 20만원, 박화영(국문 60년 졸) 5만원, 변도화(국문 60년 졸) 5만원, 손영자(국문 60년 졸) 5만원, 양중자(국문 60년 졸) 10만원, 예종완(국문 60년 졸) 10만원, 우인희(국문 60년 졸) 5만원, 육완정(국문 60년 졸) 10만원, 이영자(국문 60년 졸) 10만원, 이은정(국문 60년 졸) 10만원, 이정자(국문 60년 졸) 10만원, 장영희(국문 60년 졸) 5만원, 정명주(국문 60년 졸) 10만원, 조현숙(국문 60년 졸) 30만원, 하경희(국문 60년 졸) 10만원, 홍성옥(국문 60년 졸) 10만원, 황성이(국문 61년 졸) 10만원, 천영애(영문 55년 졸) 200만원, 송혜영(영문 69년 졸) 50만원, 이화경(영문 69년 졸) 50만원, 성혜옥(영문 70년 졸) 50만원, 김혜숙(영문 73년 졸) 100만원, 김영화(불문 61년 졸) 100만원, 김영혜(불문 77년 졸) 1000만원, 김난영(독문 69년 졸) 100만원, 권영희(독문 70년 졸) 100만원, 권태희(기독 91년 졸) 1000만원, 지금옥(정외 59년 졸) 50만원, 김경순(문정 69년 졸) 30만원, 김순권(문정 69년 졸) 50만원, 권혜순(문정 69년 졸) 360만원, 김명희(문정 69년 졸) 50만원, 이정자(사회 61년 졸) 50만원, 심리학과 동창회 임원 50만원, 심리학과 24기 100만원, 하정화(교심 76년 졸) 50만원, 윤혜섭(교심 76년 졸) 50만원, 박민정(소비자 99년 졸) 100만원, 수학과 17기 200만원, 수학과 18기 200만원, 이숙자(수학 73년 졸) 100만원, 강운자(물리 74년 졸) 50만원, 박승옥(물리 74년 졸) 50만원, 양소혜(물리 74년 졸) 50만원, 이귀애(물리 74년 졸) 50만원, 유영숙(화학 77년 졸) 250만원, 양혜정(생명 05년 입) 100만원, 이인애(피아노 69졸) 100만원, 임진(작곡 72년 졸) 100만원, 이남림(작곡 82년 졸) 100만원, 박은경(작곡 82년 졸) 100만원, 원현미(작곡 88년 졸) 50만원, 배재희(작곡 93년 졸) 100만원, 최성이(무용 73년 졸) 500만원, 노소영(서양화 88년 졸) 50만원, 민경민(도예 86년 졸) 50만원, 김미란(생미 73년 졸) 300만원, 서은주(생미 73년 졸) 100만원, 한혜숙(섬예 73년 졸) 1000만원, 김정숙(의직 69년 졸) 200만원, 여경주(의직 69년 졸) 100만원, 최영숙(의직 73년 졸) 100만원, 배수정(의직 88년 졸) 50만원, 류춘화(의직 97년 졸) 50만원, 교육학과 7기 100만원, 신장현(교육 57년 졸) $200, 유청옥(교육 88년 졸) 100만원, 남정현(초교 73년 졸) 500만원, 영어교육과 4기 100만원, 남승원(영교 82년 졸) 30만원, 송은정(영교 82년 졸) 30만원, 승현덕(영교 82년 졸) 50만원, 신정선(영교 82년 졸) 50만원, 이용숙(영교 82년 졸) 50만원, 윤덕경(법학 83년 졸) 50만원, 최수령(법학 97년 졸) 100만원, 신완철(경영 73년 졸) 100만원, 송희주(경영 75년 졸) 50만원, 안주희(경영 04년 졸) 50만원, 장하경(경영 07년 졸) 200만원, 신용실(비서 79년 졸) 200만원, 강흥순(간호 59년 졸) $2000, 유인숙(간호 59년 졸) 200만원, 윤애리나(간호 59년 졸) 200만원, 고현숙(간호 73년 졸) 300만원, 정덕유(간호 97년 졸) 500만원, 우용자(체육 72년 졸) 300만원, 김안수(식영 69년 졸) 100만원, 양경애(식영 70년 졸) 100만원, 이강희(약학 66년 졸) 200만원, 오정자(약학 67년 졸) 100만원, 김덕길(약학 69년 졸) 100만원, 이정희(약학 69년 졸) 100만원, 장희옥(약학 69년 졸) 500만원, 위성숙(약학 73년 졸) 500만원, 한숙영(약학 79년 졸) 300만원, 조종남(의학 75년 졸) 500만원, 대구동창회 100만원, 안산지회 50만원, 익명 5000만원 **이화국제재단** 배옥주(영문 54년 입) $1000, 김귀현(영문 56년 졸) $120, 조연순(영문 60년 졸) $120, 최경선(영문 61년 졸) $120, 김평자(영문 63년 졸) $120, 유미화(영문 66년 졸) $1000, 윤인자(영문 66년 졸) $200, 이민자(영문 67년 졸) $500, 문희채(영문 72년 졸) $200, 임예자(사학 65년 졸) $500, 한송희(사학 85년 졸) $100, 권성하(정외 71년 졸) $500, 박근우(사회 72년 졸) $100, 양혜자(교심 74년 졸) $120, 홍유리(신방 62년 졸) $500, 신영일(신방 72년 졸) $2000, 최길자(화학 65년 졸) $120, 정영애(생물 62년 졸) $100, 양보옥(성악 70년 졸) $200, 김성혜(도예 84년 졸) $100, 김영자(생미 66년 졸) $50, 이수자(가정 63년 졸) $120, 박경자(가정 66년 졸) $100, 이영일(의직 79년 졸) $1000, 정미선(수교 85년 졸) $100, 김명옥(경영 75년 졸) $1000, 김혜영(간호 79년 졸) $40, 김성혜(식영 72년 졸) $500, 이호영(약학 84년 졸) $100, 주숙현(의학 51년 입) $200, 선재숙(의학 72년 졸) $120, 박유미 $100 탁순덕 $300 **평생교육원** 강옥채 200만원, 김영선 1000만원, 김혜자 500만원, 류지숙 500만원, 박선희 100만원, 박신영 100만원, 박정자 50만원, 서정선 200만원, 신의균 500만원, 윤영애 100만원, 음양희 100만원, 이선희 500만원, 이차순 200만원, 장선애 300만원, 정건화 500만원, 조복순 50만원, 홍용분 500만원, 이화ALPS 총동창회 20기 200만원, 김종남(ALPS 15기, 22기) 500만원 **교직원** 김재은(명예교수) 50만원, 이광옥(명예교수) 1000만원, 홍성희(명예교수) 100만원, 박영일(디지털미디어) 200만원, 전혜영(국문) 500만원, 백옥경(사학) 1000만원, 전길자(화학) 500만원, 박선기(환경공학) 500만원, 성기선(관현악) 500만원, 이택주(관현악) 500만원, 장화진(서양화) 1000만원, 김정혜(패션디자인) 35만원, 이기숙(유아교육) 300만원, 이현주(과학교육) 2000만원, 최금숙(법학) 300만원, 김미영(간호) 500만원, 박효정(간호) 1000만원, 양숙자(간호) 1000만원, 김예영(간호) 100만원, 박현숙(후생복지과) 300만원, 김인호(박물관) 500만원 **이화가족** 공숙자 50만원, 권영수 50만원, Paul Chaleff

엠 수퍼 콘서트, 더 텐 테너스 내한공연 이니셔티브 이화 발전기금 2700만원 모금



2009년 9월 5일(토) 오후 8시 30분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엠 수퍼 콘서트가 열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브라운아이드걸스, FT아일랜드, 카라, 티아라 등이 출연해 흥겨운 무대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대외협력처 뉴스레터 2호로 공지해 동창, 기부자를 대상으로 선착순 500명에게 1인당 2매의 무료티켓을 배부했다. 또한 2009년 9월 19일(토) 오후 7시에는 팝페라 최고의 히어로 더 텐 테너스의 공연이 열렸다. 1995년 호주 브리즈번 음악원을 졸업한 테너 10명이 결성해 만든 더 텐 테너스는 이번 공연에서 'Moon River'와 'What A Wonderful World' 등을 불러 관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번 공연으로 총 2700만원의 발전기금이 조성됐다.

이화사랑장학기금 소식

의과대학동창회 장학금 총 6000만원 기부

경제적 곤란을 겪는 후배 지원을 위해 의과대학 동창회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장학금을 모금하고 있다. 2009년 8월 6일(목) 의과대학 28기 동창회(회장 김정혜)가 대외협력처에 3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밖에도 조종남 동문(75년 졸)이 1000만원을 보내와 기금을 확충했고, 올해의 이화인으로 선정된 이재옥 동문(79년 졸)이 2000만원을 보내와 이재옥장학금이 새로 조성됐다.


김정혜 동문

이재옥 동문

이화국제재단 10만불 장학금 보내와



이화국제재단에서 2009학년도 2학기 10만불의 장학금을 보내와 40명의 학생들이 1억2천여 만원의 장학금 혜택을 받게 됐다. 이화국제재단은 이화여자대학교 후원을 목적으로 1970년에 미국에 설립된 후원기관으로 지난 40여 년 동안 이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 이화국제재단은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재단이 겪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비기금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장학금 지급을 위해 노력해 글로벌 여성 리더 양성이라는 이화의 큰 비전에 동참하고 있다.

여성학과 교수 일동 장학금 5000만원 약정

2009년 8월 13일(목) 여성학과 교수 일동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5000만원을 약정했다. 본교 여성학과 김은실, 이재경, 장필화, 정지영, 조순경, 허라금 교수가 뜻을 모아 지난 2001년부터 모아온 '여성학과 교수 장학금'은 이번 5000만원 추가약정으로 1억원의 기금을 확충하게 됐다. 여성학과 학과장인 정지영 교수는 이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한국 여성학 연구를 심화시킬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며 장학금 기부의 뜻을 밝혔다.

100만원, 김파커신라 100만원, 조홍로 2000만원, 주철환 270만원, 황윤희 50만원, 홍명숙(아름뜰 대표) 1000만원, 재미한국어교사회 100만원, 미국한국어진흥재단 $1000, 엠넷미디어(주) 120만원, (주)국민은행 신촌지점 1000만원, 익명 50만원

〈글로벌인재육성기금〉

경영대학 최혜진(경영전문대학원 08년 입) 500만원, 박명주(ALPS 5기) 500만원, 현대캐피탈주식회사 1억원 **약학대학** 신윤용(약학 79년 졸) 1000만원 **법학전문대학원** 이혜경(조소 79년 졸) 300만원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8기 150만원, 구혜서(의학 59년 졸) 100만원, 김순회(의학 59년 졸) 100만원, 노영자(의학 59년 졸) 100만원, 마순자(의학 59년 졸) 100만원, 변정옥(의학 59년 졸) 100만원, 서광애(의학 59년 졸) 100만원, 손길수(의학 59년 졸) 50만원, 송애완(의학 59년 졸) 100만원, 이봉희(의학 59년 졸) 50만원, 이진화(의학 59년 졸) 120만원, 최은례(의학 59년 졸) 50만원, 정지영(의학 91년 졸) 120만원, 김경지 120만원

〈글로벌인재육성장학기금〉

스타벅스코리아 2046만 9602원, 익명 5000만원 **희망장학금** 김정민(불문 95년 졸) 10만원, 김지혜(컴퓨터 99년 졸) 10만원, 김병수(교육 81년 졸) 500만원, 강지영(영교 86년 졸) 100만원, 이원경(법학 91년 졸) 30만원, 황숙경(약학 85년 졸) 250만원, 길명주(약학 87년 졸) 500만원, 김혜란(이영회 39기) 250만원, 오경선(이영회 50기) 100만원, 김경화(수학) 100만원, 이양준(옴부즈만) 100만원, 박상표 500만원, 박지용 100만원, 양재희 300만원, 이건 500만원, (주)가야미디어 500만원, (주)링코제일 500만원, 마이쌤 500만원, 압구정샤브샤브 360만원, 재단법인 백학재단 1000만원

교내발전기금 약정자 명단

(약정기간 : 2009.6.13 ~ 2009.9.30)

건축기금(ECC) 김재희(불문 79년 졸) $4000
수리과학연구소 발전기금 노선숙(수학 79년 졸) 200만원, 이윤진(수교 92년 졸) 100만원, 조성민(수교 96년 졸) 100만원
조형예술대학프로젝트기금 김정혜(패션디자인) 15만원
의류직물학과기금 의류직물학과 동창회 100만원, 김유겸(의직 70년 졸) 200만원, 대선제분(주) 500만원, 대성산업(주) 건설사업부 200만원, (주)아이디룩 500만원
사범대학발전기금 이범명(교공 67년 졸) $200
의과대학 EMC발전기금 휴메드주식회사 625만원
의과대학사랑실천기금 신상진(의전원) 200만원
소아과학교실기금 이수정(의학 99년 졸) 100만원
간호과학대학발전기금 김재희(불문 79년 졸) $4000
건축기금(ECC) 최혜숙(간호 72년 졸) $200, 신공범(간호 74년 졸) $200
간호대학 실험연구기금 간호학과 20기 400만원, 간호학과 21기 200만원
체육과학대학기금 고승덕(건교 78년 졸) 100만원
통역번역대학원발전기금 손지봉(통역학) 100만원
사회복지전문대학원지금 남촌재단 2000만원, EWHA NOW SOCIETY 2기 800만원
의학전문대학원 운영기금 최경규(의전원) 300만원
실용음악대학원 피아노교수학 발전기금 실용음악대학원 피아노교수학 동문회 300만원
임상치의학대학원발전기금 신윤자(임치원 08년 입) 60만원, 이유진(임치원 08년 입) 60만원, 이현숙(임치원 08년 입) 60만원, 김선종(임치원) 350만원
발달장애아동센터기금 이진영(통역학) 682만 4000원
다락방선교후원기금 구본진 156만원, 구본찬 300만원, 박영진 150만원, 우상엽 200만원, 이규화 150만원, 이근형 300만원, 임문우 700만원, 조기수 300만원
패션디자인연구소기금 패션디자인연구소 1000만원
국제교육원기금 워싱턴동창회 71만 40원
사회체육교육센터발전기금 사회체육교육센터 1798만 8049원
초등교육발전기금 김동준 2000만원
저금통사업 이보라(무용 04년 졸) 5560원

이화사랑장학기금 약정자 명단

(약정기간 : 2009.6.13 ~ 2009.9.30)

동창 유중근(영문 67년 졸) 900만원, 김주현(영문 03년 졸) 720만원, 불어불문학과동창회 1942만 3389원, 김정숙(불문 71년 졸) 200만원, 최옥자(신방 65년 졸) 200만원, 노선숙(수학 79년 졸) 300만원, 이명경(무용 77년 졸) 100만원, 김영주(교육 71년 졸) 400만원, 이경순(특교 88년 졸) 1000만원, 강순옥(의학 59년 졸) $7500, 익명 $42000 **의대 28기 일동** 김복희 20만원, 김영채 100만원, 김옥화 50만원, 김은화 100만원, 김정란 100만원, 김정혜 100만원, 김종원 100만원, 김치효 100만원, 김혜숙 100만원, 박옥경 100만원, 송선옥 100만원, 안승혜 50만원, 안영옥 100만원, 유명희 100만원, 이남희 100만원, 이문향 100만원, 이선희 100만원, 이승민 100만원, 이은애 100만원, 이은정 100만원, 장은덕 50만원, 전희숙 100만원, 정경은 100만원, 정미영 100만원, 정영희 100만원, 조정란 100만원, 최금숙 100만원, 최영주 100만원, 최원주 230만원, 최윤주 100만원, 최인영 100만원 교직원 송유재(명예교수) 1000만원, 박광서(경영학) 30만원, 조기숙(국제학) 250만원, 김정희(패디연) 150만원 이화가족 문애리 $500, 이남재 520만 5000원, 이원표 200만원, 한영자 1200만원, 홍윤철 400만원, 경동교회 100만원, 대신교회 364만원, 대학교회 1000만원, 아현감리교회 100만원, 메탈로덴탈코리아 100만원, 빛탑건설(주) 400만원, 오스템 임플란트(주) 600만원, 의료법인 한아의료재단 100만원, 재단법인21세기한국연구재단 203만 8000원, (주)파고다아카데미 60만원, 일곡문화재단 150만원,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 3777만 6800원

이화의 가을, 겨울 행사

이화인들의 감성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다


설날 세뱃돈


크리스마스


김장방학


소풍

김수자(한국문화연구원 HK교수)

이화학당 시절 이화 교육의 내용을 풍요롭게 해준 것은 학습 위주의 교과 강의만은 아니었다. 이화인의 감성을 풍부하게 해주기 위해 학당 시절 선생님들은 여러 행사들을 계획·실시하였다. 학당 내 교육에 만족하지 않고 이화인들에게 여러 환경들을 접하게 하여 한국의 리더로 성장시키고자 했던 선생님들의 배려 속에서 다양한 행사들은 진행되었다.

초기 학생모집 등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학당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서는 메이데이 행사, 메이퀸 대관식, 교내 사진전시회, 보육강습, 운동회 등의 행사들이 기획되었다.

특히 학당 초기에는 입학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았지만 1890년대부터는 가을에 입학생을 받았다는 기록이 나온다. 이화는 입학식을 시작으로 가을 행사의 문을 열었다. 오곡이 무르익고, 금수강산의 산천이 예쁘게 물들던 가을에 실시되었던 이들 각종 행사는 이화인들의 감성을 풍요롭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입학식, 가을 소풍, 추수 감사기도, 크리스마스이브 행사, 설날맞이 행사 등은 한 해를 감사하며 다가올 새해를 계획하는 의미에 있어서도 중요하였다.

학교 안의 생활이 이화인의 전부였던 초창기에는 교회에 가는 의례적인 나들이 외에 가장 즐거워했던 것은 봄이 되면 꽃놀이, 가을이 되면 단풍놀이라고 할 정도로 이화인들은 소풍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다.

점심을 싸가지고 옥색 쓰개치마를 쓰고 자하문 밖 운현궁 정자로 걸어서 가는 소풍 나들이는 장안의 화제 거리이기도 하였다. 당시 이화인은 다홍색 한복으로 일종의 교복을 입고 통일된 모습으로 바깥나들이를 하였기 때문이다.

학당 초기 스크랜튼 선생님은 한국 풍속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학생들에게 경제적이면서도 아름다운 빛깔의 옷을 입혀 정갈하게 하고 학당생활을 하도록 하였다. 그것이 이화의 교복처럼 인식이 되었는데 당시 입었던 한복은 아래위 다홍색이었다. 그러나 1900년대에는 큰 학생들은 옥색치마에 흰 저고리를 입게 하여 그들 나이에 알맞은 색깔을 택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고운 옷과 통일된 옷을 입고 바깥나들이를 하는 이화인의 소풍은 그 자체로 주위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던 것이다.

1899년 서대문 청량리 가에 전차가 개통된 후에는 전차를 전세 내어 홍릉지역으로 소풍을 많이 갔다. 이 소풍에서 이화인들은 밖에 나온 기쁨을 감추지 않았으며, 자신들의 숨은 재능과 장기를 뽐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이화인들이 기다렸던 가을, 겨울 행사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추수감사 기도와 겨울철 크리스마스이브 행사였다. 크리스마스 행사는 학당이 시작하면서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크리스마스이브에는 메인홀 기도실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해 놓고 뉴잉글랜드, 뉴욕, 필라델피아 선교 지부 등지에서 온 선물을 쌓아 놓고 선물을 나누어 가지며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진행시켜 학생들과 선생이 함께 즐겼다는 기록이 있다. 이 날은 이화에 부속된 매일학교 학생들까지 한자리에 모여 성탄예배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

또한 이화학당 초기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했던 때에는 김장방학이라는 것이 있었다. 입동을 전후하여 김치 담글 시기가 되면 임시로 수업을 중지하고 기숙사에서 먹을 김치를 직접 담그게 하는 것이었다. 일제 전시에 학생들이 담가둔 김치를 가난한 이웃과 나누는 등 이화의 사랑을 전하기도 했다.

가을 소풍, 추수감사 기도, 크리스마스이브 행사, 김장방학 등을 통해 이화인들은 한편으로는 자연을 만끽하며 감성이 풍부한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감사하는 시간들을 가지며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진정한 '이화인'으로 성장해 나갔다고 할 수 있다.